

# 경기다문화뉴스

The Gyeonggi Multicultural Family News

PAPAYA STORY

외국인주민을 위한 토달정보서비스 파파야 스토리

www.papayastory.com

지금 스마트폰에서 papayastory를 검색하세요

제302호 2025년 10월 01일 (격주간) 발행인 겸 편집인 송하성 등록번호 경기 다 50340 전화 031-8001-0211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죽전대로 444, 7층(주네브 선월드 메디컬동) 8호 인쇄인 장용호 경기도 부천시 수도로 164 (주)아이피디 / danews1@daum.net 후원계좌 경기다문화뉴스 110-408-662725 신한은행 <1쇄>

## Making Home 경기도는 우리들의 보금자리

“경기도에 화합의 목소리 넘치고 평화와 상생의 씨앗이 자라요”



### 경기도, 2025 경기홈페스티벌 개최... ‘경기도가 우리 모두의 집이라는 소속감 공유’



경기도는 지난 9월 21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경기평화광장에서 안산YWCA 주최로 ‘2025 경기홈페스티벌’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도민과 이주민이 함께 어울리며 평화와 문화다양성을 실현하는 축제로 3천여명의 내외국인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경기홈페스티벌’은 HOME(Harmony Of Multicultural Everyone)의 약자로,

서로 다른 배경의 사람들이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공동체적 가치를 담았다.

이날 행사에는 9월 21일 UN이 지정한 ‘세계 평화의 날’에 맞춰 다문화어린이 합창단이 평화를 주제로 합동 공연을 선보여 눈길을 끌었다.

이번 행사는 오전 11시부터 마술 공연, 안산 다문화어린이합창단, 네팔 전통 무용, K-POP 댄스 경연대회 등 다채로운 식전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이어 외국 이주민의 인권을 강조한 경기도 이민사회 공동체 선언이 진행됐다.

김대순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많은 이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한 가운데 오늘 이민사회 축제를 개최하게 돼 기쁘다”며 “오늘 행사가 경기도에 다양한 문화와 화합의 목소리가 넘

치고 평화와 상생의 씨앗이 자라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축사에서 “이주민은 더 이상 손님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이라며 “지역 특성에 맞는 역동적인 이민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경기도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윤경 경기도의회 부의장은 “경기도의회는 내외국인이 함께 살아가는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며 “서로 소통하며 경기도가 우리 모두의 집이라는 소속감을 가지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장에는 총 64개의 부스가 운영됐다. 네팔 만두, 베트남 월남쌈, 파키스탄 커리 등 세계 각국 음식을 맛볼 수 있는 외국인 커뮤니티 부스, 의정부 경찰

서·소방서와 경기도 공공기관의 홍보관, 어린이 중고 플라마켓, 다양한 푸드트럭이 준비됐다.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이 외국인주민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소개했고 경기도이민사회통합지원센터는 다국어법률상담 부스를 운영해 현장을 찾은 이주민들에게 다양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했다.

양해규 수원시외국인복지센터장과 손영희 화성시외국인복지센터장이 한참을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부스에 머물며 이주민 보건의료 서비스를 탐색했고 많은 이주민들이 다국어법률상담 부스에서 평소 궁금했던 내용을 질문했다.

<1면에서 계속, 인터넷에서 경기외국인 SNS기자단을 검색하세요>

경기외국인SNS기자단

지자체별  
지면 안내

헤드라인 1 경기도 2 수원 3~7 오산 8~9 구리 10~11 남양주 12~15 광주 16~18 양평 19 하남 20~21 평택 22~26 용인 27~29 연천 30 과천 31 성남 32 화성 33~36

언어별  
지면 안내

중국어(Chinese) 中文 23, 29 베트남어(Vietnamese) Tiếng Việt 9, 14, 17 러시아어(Russian) Русский 13, 21, 34 태국어(Thai) ภาษาไทย 17 영어(English) 7 몽골어(Mongolian) Монгол хэл 13, 23

섹션별  
지면 안내

정책 Policy 2 생활정보 Information 6, 12, 20, 31 나의 학습 My Study 11, 12, 27, 28 외국인주민 4, 15, 29, 35 보건 Health 6, 14 여가 Leisure 4, 15 행사 Event 1, 2, 3 안전 Safe 5 육아 Child Care 32 인권 9, 13, 29, 34 출입국 Immigration 17, 21, 25 소비 Consumption 7, 23 노동 Labor 10 교육 Education 10 국제교류 27

## 외국인주민 모두에게 소속감과 자신감 심어준 '경기홈페스티벌'

### 경기도, 2025 경기홈페스티벌 통해 평화 메시지 전하고 문화다양성 실현해

〈1면에서 이어짐〉 행사장 한편에 마련된 중앙아시아 국가 캠프에서는 이주민들이 행사 기간 내내 모국어로 노래를 부르며 흥겨운 분위기를 이어갔다.

또한 부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시흥시가족센터, 파주시가족센터, 구리시가족센터와 시흥시외국인복지센터, 남양주살림의집, 수원이주민센터 등 이주민 단체가 전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안산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다가오다사회적협동조합이 운영한 커피차도 주목을 받았다. 9월이라 더위는 좀 가셨지만 한낮의 따가운

햇살을 받은 내외국인들에게 커피차의 음료가 기분을 청량하게 했다. 오후 4시에는 OBS 라디오 특집 공개방송이 진행돼 브브걸, 울랄라세션, In A Minute, 이민정 등 많은 가수가 무대에 올랐다.

한편 기념식에서는 화성, 안산, 성남시의 다문화어린이 합창단 3팀의 합동 공연이 진행됐다.

연합합창으로 부른 노래는 '아름다운 세상', '파란마음 하얀마음' 등 2곡. 이번 공연은 합창단원들에게 단순한 무대 경험을 넘어 함께 호흡하고 준비하는 과정을 통해

공동체 안에서 협력과 배려를 배우는 시간이었다.

화성시다(多)문화어린이합창단 관계자는 “무대 위에서 단원들이 느낀 성취감은 자신감을 심어주었고 앞으로 더 큰 꿈을 향해 나아가는 힘이 되었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 대해 김원규 경기도 이민사회국장은 “경기홈페스티벌은 경기도가 모든 이의 집(HOME)이 되는 사회적 의미의 축제”라면서 “이민 사회의 모범 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외국인SNS기자단



## 유호준 의원, 한파 비닐하우스서 숨진 이주노동자, 국가책임 인정 환영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남양주 다산·양정)은 지난 9월 19일 서울중앙법원 민사합소3-2부 재판부가 한파 속 기숙사로 사용하던 비닐하우스에서 사망한 캄보디아 출신 이주노동자 속행의 유족에게 정부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 대해 지도·점검을 소홀히 했기에 배상 책임이 있다며 정부가 원고들에게 각 1,000만 원씩 2,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지난 2020년 12월 속행 씨의 사망 후 이재명 당시 지사는 유족들에게 위로를 전하는 동시에 “경기도지사로서 이주노동자들의 권익에 소홀했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며 반성한 후 “비닐하우스뿐 아니라 농촌의 이주노동자 임시숙소에 대한 실태조사부터 착수하겠다. 실태조사를 토대로 이주노동자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보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유호준 의원은 이번 판결에 대해 “정부가 매년 외국인근로자 고용 사업장에 대해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관리·감독에 나서야 하지만, 실제로 꼼꼼하게 진행되지 않는 현실에 대한 법원의 지적”으로 평가한 뒤 “실제로 여전히 만연한 비인도적인 수준의 숙소와 숙소비 착취 문제에 대해 정부와 경기도의 적극적인 조사를 촉구한다.”라며 이주노동자의 열악한 숙

소와 숙소비 착취 문제를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 5월 15일 유호준 의원이 경기이주평등연대와 공동 주최한 ‘이주노동자 주거권, 현주소를 묻다’ 토론회에서는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의 법제도에 무지함을 악용해서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 외에 사업주가 따로 작성한 ‘이면계약서’를 통해 경기도지역 이주노동자들이 숙소비 명목의 임금 공제나 추가 노동을 강요받아 온 사실이 공개됐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이주노동자의 산업재해나 임금체불 등 다양한 문제에 대해 여러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 것을 높게 평가한 유호준 의원은 “이번 법원 판결의 내용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산업재해나 임금체불 외에도 이주노동자의 주거권·건강권 문제에도 국민정부정부가 관심을 가져줄 것을 희망한다.”라며 이주노동자의 주거권·건강권 문제에 대한 관심을 당부했다.

송하성 기자



수원시(시장 이재준)와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유경선)는 지난 9월 20일 시청 대강당에서 '제11회 내외국인이 함께하는 말하기 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수원 관내 외국인주민과 이주민 지원 기관 관계자, 수원시청 담당자 등 30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유경선 센터장은 인사말씀을 통해 "말로 소통하면 웃음과 기쁨을 나눌 수 있다. 이주민에게도 언어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며 "많은 이주민들이 우리와 하나가 되기 위해 끊임없이 한국어를 배우며 소통하고 있다. 오늘 행사를 통해 언어를 배우는 기쁨을 느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영상으로 전달된 축사에서 "말하기 대회는 언어를 넘어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마음을 이어주는 뜻깊은 행사"라며 "이번 대회가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는 소중한 경험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사정희 수원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은 "언어를 통해 성장하는 여러분이 자랑스롭다"며 "오늘 대회를 통해 실력을 마음껏 뽐내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대회에는 예선 심사를 거쳐 선정된 본선 진출자 10명이 참가했다.

▲'K문화에 대해'를 주제로 결혼이민자, 유학생 등 성인이 참가하는 한국어 부문 ▲'내가 좋아하는 K문화'를 주제로 다문화 가족, 중도입국자녀 등 초·

중고등학생 참여하는 이중언어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됐다.

한국어 부문에서 대상 1명, 최우수 1명, 우수 1명, 장려상 2명, 이중언어부문에서는 대상 1명, 최우수 1명, 우수 1명, 장려상 3명이 선정됐다.

경선 결과 한국어 부문 대상은 베트남 출신 이주민 응오김훤 씨, 이중언어 부문 대상은 일본 출신 박레온 씨가 받았다.

한국어 부문 최우수상은 벨라쇼바 디아나(러시아)씨, 우수상은 이진주(베트남)씨가 선정됐다.

K-문화를 주제로 발표한 벨라쇼바 디아나 씨는 "김치는 단순한 음식이 아닌 가족의 따뜻함과 사랑을 느낄 수 있어 세대를 이어주고 있다"며 "전세계

사람들이 음악으로 열광하며 하나가 되도록 유도하는 케이팝도 마찬가지다. 전세계를 연결하는 K-문화가 자랑스롭다"고 발표해 박수를 받았다.

이중언어 부문 최우수상은 찰릭 타타나로마노브나(러시아)씨, 우수상은 염수아(중국)씨가 받았다.

행사 중간 다양한 공연과 참여 이벤트가 진행돼 가족 및 친구를 응원하기 위해 나온 청중들을 즐겁게 했다.

이날 행사에 대해 이애형 경기도의원(세류1·2·3동, 권선1동)은 "즐거운 행사에 함께 하게 되어 너무 반갑고 고맙다"며 "지역사회 다문화가족들이 더 크게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송하성 기자





## 수원시외국인복지센터와 수원팔달경찰서, 외국인주민이 주도하는 '안전지킴이 발대식' 진행

수원시외국인복지센터(센터장 양해규)는 지난 9월 25일 저녁, '안전지킴이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주민 28명, 선주민 17명, 수원시청 이주민정책과 3명, 수원팔달경찰서 5명, 센터 직원 7명 총 60명 참여했다.

2016년부터 이어져 온 안전지킴이 활동은 올해를 기점으로 대장·부대장·조장·자문을 임명하며 한층 체계적인 조직 운영의 틀을 갖추게 됐다.

양해규 센터장은 환영사를 통해 "안전지킴이 활동을 사랑하고 응원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최세연 이주민정책과장은 축사에서 "그동안 꾸준히 안전 활동에 참여해준 분들이 정말 대단하다"며 "이런 노력이 모여 수원은 더 따뜻하고 안전한 도시로 발전하고 있다. 앞으로도 함께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조성연 팔달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장은 "안전지킴이의 활동은 가장 실질적인

치안 협력의 모습"이라며 "여러분의 참여와 헌신이 팔달을 가장 안전한 지역으로 만드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명식에서는 대장으로 이원수, 부대장으로 신소하, 치안안전자문위원으로 김정석, 그리고 조장으로 노단·이길동·박성애 씨가 각각 위촉됐다.

이원수 대장은 수원남부경찰서와 화성동부경찰서 수사과장, 경기경찰청 마약수사대장, 광역수사대 조폭팀장 등을 역

임하며 다양한 치안분야에서 중책을 수행했다. 자문위원으로 위촉된 김정석 위원은 상해비전체육유한공사 총관장과 연변과학기술대학교 태권도부 지도자, 한국 나사렛대학교 태권도학과와 경기대학교 경호보안학과 강의 등 국내외에서 활발히 활동해온 무도 전문가이다.

이번 리더십 체계의 구축은 앞으로 안전지킴이 활동은 더욱 조직적이고 책임감 있게 이끌어갈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임명식 후 이원수 대장은 기념사에서 "이주민과 선주민이 함께하는 공동체 치안 활동이야말로 지역사회의 신뢰를 높이는 힘"이라고 강조했다. 행사 마지막에는 참석자 전원이 "빛을 밝히자! 길을 지키자!"라는 슬로건을 외치며 지동 일대에

서 합동 순찰을 진행해 눈길을 끌었다.

이번 발대식은 단순히 치안활동을 알리는 자리가 아니라 지난 9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하는 선연과 같았다.

이주민이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안전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내 이주민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나아가 지속가능한 치안 협력 모델을 정착시키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송하성 기자

##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에서 '수원화성문화제' 등 3대 가을축제가 시작된다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에서 열리는 3대 가을축제가 시작된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축제인 '제62회 수원화성문화제'는 27일부터 10월 4일까지 8일간 이어진다. 2025 수원화성미디어아트는 27일부터 10월 12일까지 개최된다. 정조대왕 능행차 공동재현은 9월 28일 열렸다.

곽도용 수원시 문화청년체육국장은 22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세계유산 수원화성 3대 가을축제 언론브리핑'을 열고, "3대 가을축제가 글로벌축제로 자

리매김하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새빛팔달'을 주제로 하는 제62회 수원화성문화제는 축제 기간이 기존 3일에서 8일로 늘어났고, 축제 공간은 수원화성 전역으로 확대됐다.

국내외 관람객의 눈길을 끌 수 있는 웅장하고 품격 있는 대규모 프로그램과, 다채로운 시민 참여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글로벌 프로그램은 ▲조선시대 선유놀이를 모티브로 하는 수상 퍼포먼스 '선유몽'(9월 29일~10월 4일) ▲야간 군사훈련 '야조'(10월 3~4일) ▲정조대왕이 어머니 혜경궁 홍씨를 위해 화성행궁 봉수당에서 거행한 회갑연 진찬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이머시브 아트(몰입형 예술) 퍼포먼스 '진찬'(9월 29일~10월 4일) ▲초대형 종이구조물 퍼포먼스 '시민의 위대한 건축, 팔달'(9월

30~10월 4일) 등이 있다. 시민 참여 프로그램은 시민이 가마를 들고 달리는 '가마레이스', 정조대왕이 혜경궁 홍씨 회갑연을 기념해 만든 특별연회 양로연을 모티브로 한 '양로연', 어린이와 부모가 함께 전통놀이를 하는 '축성 놀이 타', 화성행도병에 시민이 색을 입혀 완성하는 '시민도화서', 시민참여형 과거시험 '별시날' 등을 준비했다.

올해는 전통문화관에서 외국인 관광객 라운지 '글로벌빌리지'를 운영한다.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외국인 복식 체험(행궁광장) ▲한복한컷 ▲우리술클래스 주랑주랑 ▲행궁티룸 다량다량 등을 운영한다.

9월 28일에는 '정조대왕 능행차 공동재현'이 열린다. 행렬 도중 장안문에서 경기도무용단과 무예24기 공연이 있고, 행궁광장에서는 능행차 입궁 퍼포먼스

를 한다. 공동재현 후에는 행궁광장에서 KBS 국악관현악단과 전통 소리꾼이 함께하는 축하공연이 열린다.

'만천명월 정조의 꿈, 빛이 되다' 시즌 5 새빛향연'을 주제로 하는 수원화성 미디어아트는 화서문을 중심으로 장안공원 일원과 장안문에서 열린다.

화서문에서는 미디어아트 '새빛향연'이 펼쳐지고, 장안공원 일원에는 '미디어파크'를 조성한다. 장안문 미디어아트 '수원유니버스'에서는 수원화성을 주제로 한 3개의 작품을 만날 수 있다.

곽도용 문화청년체육국장은 "3대 가을 축제는 시민이 만들고, 시민이 즐기며, 시민이 주인이 되는 시민 모두의 축제"라며 "대한민국 대표 글로벌 축제인 만큼 외국인 관광객을 맞이해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지은 기자

## 대한민국에서 더욱 안전해지는 방법



**Emergency Ready App**  
지금 당신이 있는 곳의 재난정보를 실시간으로 받아보세요!

- 제공내용 긴급알림, 대피소 정보, 안전수칙, 응급의료센터 경찰서 소방서 위치 등
- 제공언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태국어, 베트남어  
※ 2025년 8월부터 스페인어, 프랑스어 등 14종 언어 추가 제공





**긴급신고 바로 앱**  
위험 상황에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어요!

- 신고방법 그림이나 문구로 신고 가능
- 제공언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필리핀어  
※ 급하면 112(범죄 신고), 119(재난 안전사고 신고)로 전화해 주세요.





**국민안전 교육플랫폼**  
재난 및 안전사고에 대비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어요!

- 교육분야 일상생활 안전, 교통 안전, 재난 안전, 범죄 안전, 보안 안전
- 제공언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태국어, 베트남어





행정안전부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 在大韩民国 过得更安全的方法



**紧急应对应用程序**  
现在请实时接收您所在位置的灾难信息!

- 提供内容 紧急通知、避难所信息、安全守则、紧急医疗中心、警察局、消防局的位置等
- 提供语言 英语、汉语、日语、泰语、越南语  
※ 2025年8月起将追加提供西班牙语、法语等14种语言





**紧急报警直通应用程序**  
危险情况下可方便报警!

- 报警方法 可用图片或短信报警
- 提供语言 英语、汉语、日语、越南语、菲律宾语  
※ 紧急时, 请拨打112(犯罪报警)、119(灾难、安全事故报警)





**国民安全教育平台**  
可以学到应对灾难及安全事故的方法!

- 教育范围 日常生活安全、交通安全、灾难安全、犯罪安全、保健安全
- 提供语言 英语、汉语、日语、泰语、越南语





行政安全部

## Paraan Para Maging Mas Ligtas Sa South Korea



**App na Handa sa Emerhensiya**  
Tumanggap ng mga impormasyon tungkol sa mga sakuna sa real time batay sa iyong lokasyon!

- Nilalaman ng Serbisyo Mga emergency alert, Mimpormasyon sa mga evacuation center, Mga alituntunin sa kaligtasan, Lokasyon ng mga emergency medical center, himpilan ng pulis, at bumbero
- Wikang may Serbisyo Ingles, Tsino, Hapon, Thai, Vietnamese  
※ Simula Agosto 2025, magdadagdag pa ng 14 na wika tulad ng Espanyol, Franses, atbp.





**App ng Pag-ulat ng Emerhensiya**  
Madaling makakapag-ulat sa oras ng panganib!

- Paraan ng Pag-ulat Maaaring mag-ulat gamit ang larawan o text message
- Wikang may Serbisyo Ingles, Tsino, Hapon, Vietnamese, Filipino  
※ Sa agarang emerhensiya, tumawag sa 112(para sa krimen), 119(para sa sakuna- aksidente- pag-ulat).





**Plataporma ng Edukasyon sa Kaligtasan ng Mamamayan**  
Matutunan kung paano maging handa sa mga sakuna at aksidente!

- Larangan ng Edukasyon Kaligtasan sa pang-araw-araw na buhay, Kaligtasan sa trapiko, Kaligtasan sa sakuna, Kaligtasan laban sa krimen, Kalusugan at kaligtasan
- Wikang may Serbisyo Ingles, Tsino, Hapon, Thai, Vietnamese





행정안전부  
Ministri ng Pantloob at Kaligtasan

## วิธีปลอดภัยมากขึ้นใน นสธารณ์รัฐเกาหลี



**แอป Emergency ready**  
รับข้อมูลภัยพิบัติในพื้ที่ที่คุณอยู่แบบเรียลไทม์!

- ข้อมูลที่ ใ้ แจ้งเตือนฉุกเฉิน, ข้อมูลศูนย์อพยพ, การแจ้งเตือนความปลอดภัย, ตำแหน่งที่ตั้งศูนย์บริการการแพทย์ฉุกเฉิน-สถานีตำรวจ สถานีดับเพลิง ฯลฯ
- ภาษาที่รองรับ อังกฤษ, จีน, ญี่ปุ่น, ไทย, เวียดนาม  
※ ตั้งแต่วันที่ 1 สิงหาคม 2568 จะเพิ่มอีก 14 ภาษา เช่น สเปน, ฝรั่งเศส





**แอปแจ้งเหตุฉุกเฉิน**  
แจ้งเหตุได้ง่ายเมื่อเกิดสถานการณ์อันตราย!

- วิธีแจ้งเหตุ ส่งภาพหรือส่งข้อความได้
- ภาษาที่รองรับ อังกฤษ, จีน, ญี่ปุ่น, เวียดนาม, ฟิลิปปินส์  
※ กรณีฉุกเฉิน โทร 112 (แจ้งอาชญากรรม), 119 (แจ้งเหตุฉุกเฉิน-อุบัติเหตุ)





**แพลตฟอร์มการเรียนรู้เพื่อความปลอดภัย**  
เรียนรู้เตรียมพร้อมรับมือภัยพิบัติและอุบัติเหตุด้านความปลอดภัย!

- หัวข้อ ความปลอดภัยในชีวิตประจำวัน, ความปลอดภัยทางถนน, ความปลอดภัยจากภัยพิบัติ, ความปลอดภัยจากอาชญากรรม, ความปลอดภัยในชุมชน
- ภาษาที่รองรับ อังกฤษ, จีน, ญี่ปุ่น, ไทย, เวียดนาม





행정안전부  
กระทรวงมหาดไทยและความปลอดภัย



## 10월 수원페이 인센티브 확대

수원시(시장 이재준)가 추석 명절을 맞아 10월 수원페이 인센티브를 20%로 확대한다.

인센티브는 10월 1일 9시부터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지급한다. 충전 한도는 50만 원이다. 50만 원을 충전하면 인센티브 1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수원페이는 경기지역화폐 앱이나 오프라인 충전소에서 충전할 수 있다. 오프라인 충전소 목록은 수원시 홈페이지(www.suwon.go.kr) 검색창에서 '수원시 지역화폐'를 검색해 공지사항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1인당 수원페이 보유 한도는 100만 원이다. 잔액을 소비해야 여유분만큼 충전할 수 있다.

수원시는 올해부터 수원페이 인센티브를 10%로 확대했다. 30만 원이었던 충전 한도는 50만 원으로 상향했고, 설, 추석 명절이 있는 1월, 10월에는 인센티브를 20%로 확대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수원페이 인센티브 확대가 시민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추석 연휴에 골목상권에서 소비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송하성 기자

수원 지역의 대표적인 이주민 문화예술단체인 ‘정만천하이주여성협회(회장 왕그나)’가 한중일을 하나로 묶는 문화예술교류 행사를 개최했다.

중국 절강성 닝보시여의악단(단장 천리나)과 (사)글로벌문화예술총연합회는 지난 8월 20일 수원컨벤션센터 이벤트를 통해 ‘2025 한중일 수원시 문화예술교류 및 해동금맥 한중수교 33주년 특별초청 음악회’를 개최했다.

정만천하이주여성협회가 주관한 이날 행사는 한중 수교 33주년을 맞아 중국 절강성 닝보시 예술인들을 초청해 한국과 중국의 문화예술을 공유하는 우호와

화합의 장으로 마련됐다. 왕그나 회장은 “한중 수교 33주년을 기념하는 오늘 행사에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수원 지역에서 글로벌 문화를 확산하는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천리나 단장은 “한중 교류에 참여할 수 있어서 영광이다”며 “이번 교류를 통해 중한관계가 원만하기를 바란다. 앞으로도 교류행사 적극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중흥늬 주한중국대사관 총영사는 “33년전 한중은 외교관계를 수립해 양국 발전에 새로운 장을 열었다”며 “특히 수원시가 오랜 시간 동안 재한 중국 동포의

생활과 사업 발전을 위해 노력한 점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이날 문화교류 행사에서는 소프라노 조이화, 전통민요 그린나래예술단, 쟁강춤 위윈주, 아쟁연주 정만천하 임이진 등 한중일의 뛰어난 예술인들이 공연을 펼쳐 눈길을 사로잡았다.

3시간에 걸친 중국과 한국의 공연은 관객들에게 색다른 즐거움 선사했으며 특히 민간의 문화예술교류가 지역사회 다문화에 대한 인식 전환에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날 행사는 수원특례시와 주한중국대사관 영사부가 후원했다. 송하성 기자



## 수원수목원 가을 야간 밤빛 정원

수원시(시장 이재준)는 10월 3일부터 11월 1일까지 매주 금·토요일 ‘2025년 수원수목원 가을 야간 운영 밤빛 정원’을 연다.

일월·영흥수목원 운영 시간을 연장한다. 주제정원·온실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9시까지(입장 마감 오후 8시 30분), 방문자센터는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 30분까지다.

밤빛 정원에서는 야간 산책 프로그램과 함께 다양한 체험, 문화공연이 펼쳐진다. 매주 토요일에는 버스킹 공연이 열리고, 매주 금·토요일에는 식물 헤나·타로 등 이색적인 체험이 진행된다.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문화공연과 플라마켓도 마련돼 수목원의 가을 밤을 더욱 풍성하게 만든다.

수원시 관계자는 “가을 밤빛 정원은 야간 산책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다채로운 공연과 체험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문의 수원시 수목원과 운영팀, 031-5191-4564 송하성 기자

## 수원시, 내년 4월까지 인플루엔자(독감) 무료접종

### 어린이·임신부·취약계층 대상 내년 4월 30일까지...국가·자체사업 병행

수원시(시장 이재준)는 어르신·어린이·임신부·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을 시행한다.

접종 대상은 ▲생후 6개월~13세 어린이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196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과 ▲14~64세 수원시민 중 기초생활수급자 ▲심한 장애(구 1~3급) ▲국가유공자 본인이다.

접종 기간은 2회 접종 대상 어린이는 9월 22일부터, 어린이(1회 접종 대상)와 임신부는 9월 29일부터 2026년 4월 30일

까지다. 어르신은 ▲75세 이상 10월 15일 ▲70~74세 10월 20일 ▲65~69세 10월 22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다.

기초생활수급자·심한 장애·국가유공자는 10월 24일부터 12월 31일까지 수원시 관내 위탁의료기관 177개소에서 접종받을 수 있다. 지원 백신은 인플루엔자 3가 백신이고, 무료 접종이다. 접종할 때 신분증이 필요하며, 임신부는 산모수첩·임신확인서 등, 기초생활수급자·심한 장애·국가유공자는 수급자 증명서·복지카드·국

가보훈등록증 등을 지참해야 한다.

상세한 내용은 수원시보건소 홈페이지(https://health.suwon.go.kr)→정보광장→보건소식 게시판 ‘2025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독감은 고령층, 어린이, 임신부 등 면역력이 약한 계층에 특히 위험하다”며 “대상자는 접종 기간 내 가까운 지정 의료기관에서 반드시 무료 예방접종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송하성 기자



친절하게 안내해준 덕분에 가족들과 좋은 시간을 보냈어요! 제가 한부모가정이라 경제적으로 어려워 8세 자녀를 위해 요리재료를 사고 싶어도 많이 부담이 됐고, 아이한테 미안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요리키트를 통해 맛있는 식사를 할 수 있어 생활에 정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고 말했다.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례관리사 김 모 씨는 조손가정과 독거노인 등을 지원하며 느낀 소감을 전했다. “식사가 꼭 필요한 분들께 따뜻한 한 끼를 제공할 수 있어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매일의 끼니가 걱정인 분들께 오늘날만큼 식사 부담을 덜고, 일상의 소소한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돕고 싶었습니다. 단순한 나눔을 넘어 삶의 버팀목이 되었다

###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동남보건대 식품영양학과, ‘제12회 K-COOK 요리교실’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유경선)는 지난 8월 20일 동남보건대학교(총장 김종완)의 지원과 식품영양학과(학과장 원혜숙)의 주관으로 ‘제12회 K-COOK 요리교실-가족과 요리키트로 배우는 요리조리 UP’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가족과 함께 직접 요리를 만들어 먹으며 소중한 추억을 만들고, 가족 간 소통과 유대감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다문화가족 300가정에 요리키트가 전달됐다.

‘K-COOK 요리교실’은 동남보건대학교의 지원으로 2019년부터 매년 상·하반

기에 진행되는 사업이다. 올해도 식품영양학과 조리실습실에서 ‘음식으로 떠나는 여름, 서울 기행’이라는 주제로 요리실습 체험도 하고, 가정에서 쉽게 만들 수 있도록 식재료 키트가 제공됐다. 300가정에 전달된 요리키트는 단순한 문화 체험을 넘어 가족 간 대화의 기회를 제공하고, 실질적인 식생활 지원의 역할도 했다.

행사에 참여한 다문화가족들의 반응은 뜨거웠다.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여성은 남편과 함께 요리하며 특별한 시간을 보냈다. 그는 “어제 받은 요리키트로 남편과 함께 요리를 했어요. 평소엔 각자 바

빠서 함께 식사 준비할 시간이 없었는데, 오랜만에 대화도 나누고 웃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늘은 한 가지 요리만 만들었지만, 내일은 다른 요리도 해보려합니다.”고 말했다.

필리핀 출신 이주여성 역시 “남편이 평소엔 요리를 잘 하지 않는데, 밀키트 덕분에 김치찌개를 직접 끓여주었어요. 온 가족이 함께 식사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라고 말했다.

또 다른 베트남 출신 이주여성은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선생님들이 요리키트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는 점에서 더욱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프로그램에 대해 원혜숙 교수는 “K-COOK 요리교실은 단순한 요리 수업을 넘어 다문화가족이 한국문화를 이해하고 가족 간 소통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협력해 의미 있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유경선 센터장은 “요리를 통한 교류는 가족과 이웃을 연결하는 매개체이며, 계속해서 다문화가족이 지역사회와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 Foreign residents can also get a 5,000 won discount on special delivery orders of 20,000 won or more! 경기도 배달특급 특별할인 안내

Foreign residents who order food delivery using Gyeonggi Province's public delivery app, Baedal Teukgeup, can receive an immediate discount of 5,000 won on orders over 20,000 won.

Gyeonggi Province's public delivery app, Baedal Teukgeup, announced that it will change its coupon issuance policy starting in October in line with the Korean government's "Public Delivery Activation" plan.

Many foreigners are familiar with Korean food delivery apps like Baedal Minjok and Yogiyo, but Baedal Teukgeup, created in

Gyeonggi Province, is even better. Other food delivery apps charge high commissions to restaurants, making them difficult to find. However, Baedal Teukgeup, a public delivery app, charges very low commissions, making it popular with restaurants. However, its limited user base is a drawback. Gyeonggi Province Company announced that, starting October 1st, it will change the public delivery coupon issuance conditions to immediately issue a 5,000 won discount coupon for orders exceeding 20,000 won (one coupon per person

per day). Previously, discount coupons were issued for two monthly orders of 20,000 won per person.

Since June 10th, the Korean government has been promoting a consumer coupon program to promote public delivery apps to ease the burden on restaurant management and benefit consumers.

This relaxation of standards is being implemented to further promote public delivery.

To get a 5,000 won discount on orders over 20,000 won, download and install 'Delivery Express' from

the Google Play Store or Apple App Store!

A Gyeonggi Province Company official said, "With the standards for issuing consumer coupons being relaxed once again, consumers will be able to receive discount coupons immediately, making them more convenient to use.

At the same time, franchise owners will have more opportunities to expand their orders, which is expected to have a positive impact."

〈한글 기사 23편〉

파파야스토리



**다문화가족, 한국민속촌 나들이...오산시가족센터, 상호이해와 협력의 기회 제공**

오산시가족센터(센터장 이병희)는 지난 9월 20일 용인 한국민속촌에서 다문화가족 캠프 지원 ‘한국민속촌 나들이’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다문화가족 캠프는 다양한 가족이 함께 활동하며 상호 이해와 협력을 도모하고, 부모의 양육 참여와 가족 간

유대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캠프에는 37 가정 총 115명이 참여했다.

참여 가족들은 1회차에서 부모-자녀 관계 개선을 위한 실시간 온라인 필수교육을 받았으며, 2회차에서는 현장체험으로 한국민속촌 나들이가 운영돼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캠프에 참여한 이00씨는 “다른 다문화가족과 만남이 큰 의미가 있었고, 이번 한국민속촌 나들이를 통해 가족 간의 유대감을 쌓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이병희 센터장은 “다양한 가족이 함께 하는 다양한 체험과 교육 프로그램을 통

해 가족관계 증진과 건강한 가정문화 확산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해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다문화가족 캠프는 경기도와 오산시가 주최하고, 오산시가족센터가 주관했다.

김영의 기자

**별자리로 소통하는 가족 모여라**

**오산시가족센터, 가족사랑의 날 프로그램**



오산시가족센터는 지난 9월 24일 가족사랑의 날을 맞아 ‘반짝반짝 빛나는 우리 가족 별자리 만들기’ 프로그램을 오산시 자원봉사센터에서 성황리에 진행했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총 12가족, 30명이 참여해 가족 간 정서적 소통과 창의적인 활동을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프로그램은 각 가족의 탄생 별자리를 알아보며 가족 구성원 간의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나누고, 이를 통해 서로의 감정을 이해하며 정서적 유대감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이어 아크릴 물감을 활용한 미술 활동을 통해 가족별로 개성 있고 특별한 별자리 작품을 완성, 참가자들은 서로의 작품을 공유하며 성취감과 즐거움을 함께

나눴다. 참여 가족들은 “별자리라는 특별한 주제를 통해 대화할 수 있어서 좋았다”라며 “아이와 함께 작품을 만들면서 친밀감이 높아졌다.”고 했다. 특히 부모와 자녀가 함께 몰입해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가족 간 협동심과 창의성이 동시에 발휘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컸다.

오산시가족센터 관계자는 “가족사랑의 날은 바쁜 일상 속에서 가족이 다시 모여 함께 즐기는 특별한 시간”이라며, “이번 프로그램은 별자리와 미술 활동을 결합해 가족 간 유대와 창의성을 동시에 키우는 계기가 되었다”고 밝혔다.

한편, ‘2025년 가족사랑의 날’은 정시퇴근을 통해 가족과 함께하는 문화를 장려하기 위해 오산시가족센터가 운영하는 사업이다.

오산시가족센터는 앞으로도 정시퇴근 문화를 확산하고 지역사회 가족의 친밀한 관계 형성을 위해 다양한 가족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김영의 기자

## 부모-자녀 집단상담, 정서 유대 강화

오산시가족센터, '함께 그리는 우리가족' 진행



오산시가족센터는 지난 9월 5일부터 13일까지 부모-자녀 집단상담 '함께 그리는 우리 가족'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가정 내 긍정적인 변화를 끌어냈다.

이번 프로그램은 관내 초등생 자녀를 둔 가정을 대상으로 금요일과 토요일 총 4일간 진행됐으며, 부모와 자녀가 서로를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을 가졌다.

집단상담은 미술 매체를 활용한 표현활동과 상호작용적 의사소통 과정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부모-자녀가

작품을 완성하고 이를 공유하며 자연스럽게 감정을 표현하고 서로의 생각을 이해하는 기회를 얻었다.

참여자들은 "아이와 함께 색다른 경험을 할 수 있었다.", "둘이 함께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낸다는데 좋았다.", "아이와 함께 만들면서 친밀도가 향상되었다." 등의 소감을 전했다.

참여 가족들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정서적 유대감을 강화하고, 긍정적인 의사소통 방식 습득과 같은 변화를 경험했다. 또한, 자녀들은 또래 공감과 상호작용이 강화돼 집단의 응집력이 높아졌으며 협동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기술을 배울 수 있었다. 부모들은 양육 고민에 대해 서로 경험을 공유하고 대처전략이나 양육 태도에 대한 현실적인 조언과 지지를 주고받았다.

오산시가족센터 관계자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시간이 가족관계에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음을 확인했다."라며 "앞으로도 가족들이 심리적 안정과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상담과 심리적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김영의 기자

## '아이돌보미 쉼과 격려의 장' 오산시가족센터, 집담회 개최

오산시가족센터는 지난 9월 23일 아이돌봄지원사업 아이돌보미를 대상으로 전문성 강화 및 힐링콘서트를 주제로 대규모 집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집담회는 아이돌보미가 매일 아동과 활동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스트레스나 업무 소진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아이돌봄지원사업 활동 중인 아이돌보미 146명이 참석했다.

이날 집담회는 댄스공연과 뮤지컬 아카펠라 공연을 통해 아이돌보미가 온전히 쉼을 가지고 즐거움을 느끼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또한 아이돌보미 인적성검사를 진행해 전문성을 강화하고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집담회에는 이병희 오산시가족센터장과 이권재 오산시장이 참석해 아이돌보미에게 축하와 함께 격려의 말을 전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아이돌보미는 "뮤지컬 공연을 볼 수 있어서 좋았고, 내가 아는 노래를 뮤지컬 배우가 불러준다는 게 매우 즐거웠다."고 말했다. 아이돌봄지원사업 관계자는 "선생님들이 아이돌보미 활동을 즐겁게 할 수 있도록 센터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고 밝혔다. 김영의 기자

## Bảo đảm quyền lợi cho cư dân nước ngoài, Tỉnh Gyeonggi đi đầu mạnh mẽ hơn nữa!

Tỉnh Gyeonggi ban hành 3 bộ điều lệ đầu tiên trên toàn quốc về bảo đảm nhân quyền cho người di cư, bao gồm cấm phân biệt đối xử theo màu da và quốc tịch.

Việc cấm phân biệt đối xử theo màu da và quốc tịch, hỗ trợ chỗ ở, y tế, giáo dục cho người tị nạn, cũng như bảo đảm quyền lợi một cách có hệ thống cho trẻ em nước ngoài chưa được đăng ký khai sinh đã được thể chế hóa lần đầu tiên trên toàn quốc, bao gồm cả chính quyền trung ương và địa phương

Tỉnh Gyeonggi cho biết tại kỳ họp toàn thể lần thứ 386 của Hội đồng tỉnh Gyeonggi diễn ra vào ngày 19 tháng 9 vừa qua, đã thông qua 3 điều lệ bao gồm: ① Điều lệ cấm phân biệt chủng tộc và bảo đảm nhân quyền đối với người dân có nguồn gốc di cư tại tỉnh Gyeonggi ② Điều lệ bảo vệ nhân quyền và bảo đảm đời sống cơ bản cho người tị nạn tại tỉnh Gyeonggi ③ Điều lệ phát hiện và hỗ trợ trẻ em nước ngoài chưa được đăng ký khai sinh tại tỉnh Gyeonggi.

Việc ban hành các điều lệ lần này có ý nghĩa to lớn, bởi đây là trường hợp đầu tiên trên toàn quốc mà tỉnh Gyeonggi thiết lập một cách có hệ thống nền tảng về bao dung và nhân quyền trong bối cảnh xã hội đa văn hóa và di cư đang thay đổi nhanh chóng.

"Quy định về Cấm phân biệt chủng tộc và Bảo

đảm nhân quyền cho người dân có nền tảng di cư" (do Nghị viên Yoo Ho-jun chủ trì đề xuất) quy định việc ngăn ngừa phân biệt đối xử, hỗ trợ khắc phục thiệt hại, điều tra thực trạng, tuyên truyền và giáo dục nhằm bảo đảm mọi người di cư đều được hưởng quyền bình đẳng, bất kể màu da, quốc tịch, ngôn ngữ hay nền tảng văn hóa. Quy định này cũng bao gồm nghĩa vụ thành lập ủy ban và xây dựng kế hoạch cơ bản để bảo đảm tính bền vững của chế độ.

"Quy định về Bảo vệ nhân quyền và Bảo đảm cuộc sống cơ bản cho người tị nạn" (do nghị viên Yoo Ho-jun đề xuất) đã tạo cơ sở hỗ trợ toàn diện về nhà ở, giáo dục, y tế, việc làm... cho người tị nạn, bao gồm cả người xin tị nạn và người lưu trú nhân đạo. Quy định cũng thành lập Ủy ban Tư vấn Chính sách Hỗ trợ Người Tị nạn, qua đó có thể triển khai nhiều chương trình hỗ trợ như trợ cấp sinh hoạt khẩn cấp, tư vấn y tế và tâm lý, hỗ trợ việc làm và khởi nghiệp.

"Quy chế Phát hiện và Hỗ trợ Trẻ em Nước ngoài Chưa đăng ký khai sinh" (do nghị sĩ Lee In-ae đề xuất) đã thiết lập thủ tục chính thức để xác nhận và cấp giấy chứng nhận cho trẻ em sinh r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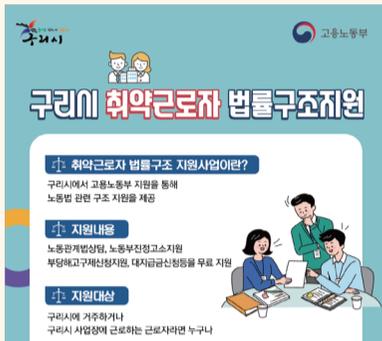
tại Hàn Quốc nhưng chưa được đăng ký khai sinh. Thông qua quy chế này, các dịch vụ cơ bản như y tế, chăm sóc sức khỏe, giữ trẻ và giáo dục sẽ được đảm bảo, đồng thời sẽ thiết lập cơ chế hợp tác với các cơ quan hành chính, giáo dục, chăm sóc trẻ em và phúc lợi trẻ em.

Gyeonggi dự định thực hiện nhanh chóng các biện pháp tiếp theo cần thiết sau khi ban hành nghị định. Vào ngày 28 tháng 10 tới, tại Hội trường Quốc hội, sẽ tổ chức "Hội thảo tăng cường bảo đảm quyền con người cho người di cư" để chia sẻ ý nghĩa của việc ban hành nghị định, đồng thời tìm kiếm các phương án mở rộng cơ sở pháp lý hỗ trợ chính sách người di cư và hòa nhập xã hội trên toàn quốc.

Ông Heo Young-gil, Trưởng phòng Chính sách Xã hội Di cư tỉnh Gyeonggi, cho biết: "Các điều lệ này không chỉ là những quy định đơn thuần, mà là một cam kết xã hội nhằm đảm bảo người dân và người nhập cư cùng tồn tại mà không có sự phân biệt." Ông cũng nói thêm: "Chúng tôi sẽ nhanh chóng thực hiện các biện pháp tiếp theo để tỉnh Gyeonggi dẫn đầu trong chính sách xã hội dành cho cộng đồng di cư." <한글 기사 34면>

## 노동자가 안심하고 일하도록!

### 구리시, 노동 약자 법률구조 사업 확대



구리시는 최근 경기 불황으로 임금체불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드러남에 따라 「2025년 노동 약자 일터 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노동 약자 법률구조 사업을 9월 22일부터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반가운 소식이다.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2024년 전국 임금체불액은 2조 448억 원으로 전년 대비 14.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임금체불은 노동자의 생계와 직결되는 심각한 문제일 뿐 아니라 특히 비정규직, 미조직근로자, 영세사업장 근로자, 온라인 기반 노동자 등 취약 계층 노동자들에게 더

큰 위협이 되고 있다. 이에 구리시는 기존 노동자종합지원센터의 노동법률상담 기능을 강화하고 권리구제 지원을 확대한다. 노무법인을 통해 ▲임금체불 ▲퇴직금 및 각종 수당 미지급 ▲부당해고 등에 대한 고용노동부 진정서 접수, 대지급금 신청서 작성 등 법률구조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신청 자격은 구리시에 거주하거나 구리시에 있는 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로, 전화(구리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 031-550-2913) 또는 센터 방문을 통해 상담 후 지원받을 수 있다. 구리시는 대상으로 선정된 근로자에게 상담부터 노동 관련 법률구조까지 전액 무료로 제공한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임금체불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노동 약자들이 신속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라며 “앞으로도 노동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 공익활동가 교육 수강생 모집

### 공익활동지원센터, 갈등관리교육 실시



구리시공익활동지원센터는 「2025년 공익활동가 양성 교육」 수강생을 모집한다. 신청 기간은 9월 19일부터 10월 15일까지이며, 구리시 통합예약 포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공익활동가 및 관련 분야에 관심 있는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다문화 가족도 이 교육에 참여하면 좋겠다.

이번 교육은 10월 21일부터 29일까지 총 4회 과정으로 진행되며, 공익활동가의 소통 역량 강화와 스트레스-갈등 관리 능력 향상을 목표로 기

획됐다. 공통과목은 공공캠페이너 엘리자 대표 장종원 강사가 ▲무엇을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소통 감각의 기반 다지기 ▲메시지 만들기과 전달 전략을 주제로 강의한다. 선택과목은 H&교육컨설팅 대표 박현주 강사가 맡아 ▲스트레스와 힐링 프로그램-스트레스 해법 ▲의사소통 프로그램-조직 갈등 관리 강의를 진행한다.

교육을 수료한 참가자에게는 수료증이 발급되며, 2026년도 공익 활동 지원사업 공모 시 가점 10점의 우대 혜택이 제공된다.

교육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구리시공익활동지원센터(031-550-8997) 또는 구리시청 민관협력팀(031-550-2058)으로 문의하면 된다. 송하성 기자

## '한국사 카페' 참가자 모집해요

### 구리시청소년재단, 청소년 역사·문화 체험



구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강종일) 청소년수련관은 「2025 한국사 카페」 프로그램 참가자를 9월 23일(화)부터 10월 2일(목)까지 구리시 청소년수련관 홈페이지를 통해 모집한다.

모집 대상은 구리시에 거주하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의 청소년 30명이며, 참가비는 무료다. 다문화 가정 자녀도 참가할 수 있다.

「2025 한국사 카페」는 구리시의 역사와 문화유산을 탐구하고 조선 왕실 문화를 배우며, 동구릉을 직접 탐방하는 청소년 역사·문화 체험활동으로 오는 10월 18일(토)에 진행된다. 참가 청소년들은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깊이 이해할 수 있는 뜻깊은 경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번 프로그램은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인증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에 등록된 활동으로, 청소년이 안전하고 유익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심사와 인증을 거쳤다.

구리시청소년수련관 관계자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들이 우리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더 쉽게 이해하고, 중요한 문화유산을 직접 체험해 보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라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구리시 청소년들이 구리시의 역사와 문화에 관심을 가지고, 그 가치를 존중하며 배우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며,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여러분이 구리시의 역사적 유산을 깊이 이해하고, 자긍심을 느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구리시청소년재단 청소년수련관에서는 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자세한 프로그램은 홈페이지, 네이버밴드(<https://band.us/band/88937368>), 유튜브([www.youtube.com/@guriyouth](http://www.youtube.com/@guriyouth)),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송하성 기자

##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 구리시, 코로나 백신도 내년 4월까지

구리시(시장 백경현)는 2025~2026절기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에 대비해, 9월 22일부터 2026년 4월 30일까지 관내 110개 위탁의료기관에서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생후 6개월 이상 13세 이하 어린이,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 요양병원·장기 요양기관 종사자, 취약계층 등 감염병에 취약한 시민을 대상으로 대상자별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물론 다문화가족도 받을 수 있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9월 22일 2회 접종이 필요한 어린이를 시작으로, 9월 29일부터는 1회 접종 대상 어린이와 임신부도 접종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관내 요양병원과 장기 요양기관 종사자에 대한 인플루엔자 접종은 10월 13일부터 12월 12일까지 진행된다.

65세 이상 어르신은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 백신을 같은 기간 내 동시 접종할 수 있으며, 나이에 따라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접종 시작일은 ▲75세 이상 10월 15일 ▲70세 이상 10월 20일 ▲65세 이상 10월 22일이다.

한편, 구리시에서는 주민등록상 구리 시민인 65세 미만의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기존 1~3급에 해당하는 심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10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구리시 보건소(인창동)에서 무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해당 대상자들은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해야 한다.

전국 접종 가능한 위탁의료기관은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이나 보건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031-550-8645 이지은 기자

## 가정센터 구리시가족센터 가족사업팀

### 부부 특성화 지원사업

다양한 부부의 관계 개선 및 가족 건강성 증진 지원

☎ 070 - 7776 - 2978

### 1인가구 지원사업

구리시 거주 1인가구 대상 사회적 교류 증진, 상호화합의 사회 기반 마련, 1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








a. 금융안전교육 : 재무·설계 교육  
b. 건강돌봄프로그램 : 신체·정신적 건강 증진  
c. 중장년수다살롱 : 만 40~64세 대상 관심분야 동아리 지원

d. 식생활개선다이닝 : 연령대별 건강식 이론·실습교육  
e. 생활꿀팁바구니 : 자기돌봄 능력 향상 위한 꿀팁 강의  
f. 1인가구자유주제제안사업 : 세대통합 여가생활 지원

☎ 070 - 8830 - 9009

### 아빠-자녀프로그램

부모-자녀 관계 향상 및 가족역량 강화 위한 아빠와 자녀가 함께하는 다양한 소통형 체험프로그램 "아빠랑 나랑 노랑"

☎ 070 - 8895 - 9263



### 모두가족봉사단

학령기 자녀와 부모로 구성된 다양한 가족의 월 1회 정기적 환경 봉사로 건강한 가족 문화 형성, 지역 사회 공동체 의식 향상

☎ 070 - 7775 - 6978



## 가정센터 구리시가족센터 아이돌봄팀

### 아이돌봄서비스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의 안전한 돌봄을 위해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서비스



☎ 아이돌봄팀 대표번호 031-551-3133

- 시간제서비스(기본)** : 등하원 및 준비물 보조, 부모님이 오실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 영아종일제서비스** : 생후 3개월 이상 ~ 영아 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 (이유식 먹이기, 젖병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 생후 3개월 이상 ~ 만 36개월 이하 병원 이용 동행 및 재가 돌봄 서비스 제공
- 긴급돌봄서비스** : 긴급하게 양육 공백이 생겨 돌봄이 필요한 만 12세 이하 당일 2시간 전까지 돌봄 서비스 요청 가능
- 경기도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 중위소득 150% 이하 혹은 둘째아 이상 출생가정 본인부담금 지원

###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행정복지센터 방문 혹은 복지로 정부신청 (소득기준에 따라 유형 한정)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회원가입 ([www.idolbom.go.kr](http://www.idolbom.go.kr))

서비스 신청 (홈페이지, 앱, 수기신청)

서비스 이용 2일 전 요금 납부 (서비스 시작시간 기준 24시간 이내 취소 시 취소 수수료 발생)

## 가정센터 구리시가족센터 경기도거점사업팀

### 경기북부거점센터

경기 북부 권역의 센터에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 다양한 가족의 안정과 지역사회의 협력 강화

프로그램 개발·보급    직원교육    네트워크 구축    운영·현장 지원



경기북부 10개 (통합, 건가, 다가) 가족센터 업무 지원 및 지역 네트워크 강화 진행

### 경기북부다문화가족지원거점센터

경기도 권역 지역센터 종사자 대상

- 행정실무·역량강화교육
- 법정의무·법률교육
- 방문교육지도사보수교육
- 찾아가는 소진예방교육
- 종사자 네트워크

☎ 031 - 556 - 4140

### 경기북부한부모가족지원거점기관

경기북부 권역 거주 한부모가족 대상 (자녀 만 18세 이하, 취학 중일 경우 만 22세까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맞춤형서비스 제공, 자립역량 강화 및 성장 지원



- a. 심리 및 정서 지원
- b. 자립지원정보제공
- c. 교육문화체험프로그램 운영지원 등

☎ 070 - 7776 - 2980

### 서포터즈 한부모가족인식개선

온라인·오프라인 콘텐츠 제작 및 대규모 캠페인 진행으로 한부모가족 인식개선 도모

### 미혼모양육물품지원사업

만 3세 이하 자녀를 양육 중인 미혼모 가정에게 양육물품 전달

☎ 070 - 7775 - 6139





## “따뜻한 대화와 정서적 유대 나뉘요”

남양주시가족센터, 노인부양가족 지원사업 진행

남양주시가족센터는 지난 9월 13일 오전 해피트리오 양원에서 노인돌봄기초교육 ‘힐링체험프로그램-주물럭 비누만들기’를 진행했다.

25명의 노인부양가족이 참여한 이번 행사에서는 남양주시의 지원을 받아 건강, 정서지원교육, 힐링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남양주시가족센터는 기관소개와 함께

가족소통의 시간을 갖고 가족간의 따뜻한 대화와 정서적 유대를 나눌 수 있도록 했다.

남양주시가족센터는 시민들의 높은 만족도와 지속적인 지원에 대한 요구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노인부양가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지원사업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지은 기자

## 남양주시사랑상품권 추석 맞아 10월 충전 한도 50만원 확대

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추석을 맞아 위축된 소비심리 회복과 지역 내 소비 촉진을 위해 10월 한달간 남양주시사랑상품권 인센티브 충전 한도를 기존 월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시민은 최대 50만 원까지 충전 시 10% 인센티브인 5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인센티브 비율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되지만, 충전 한도가 늘어나면서 실질적인 혜택이 커졌다.

한편 남양주시사랑상품권은 오는 11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기존 가맹점뿐만 아니라 연매출 30억 원 이하 비가맹점(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이번 한도 상향은 추석을 앞둔 시민들의 소비 부담을 덜고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내 소비 촉진과 상권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 하겠다”고 말했다. 다문화가족들도 지역사회 상품권을 적극적으로 이용해 보자. 경제적인 이득이 적지 않다. 이지은 기자

## 중도입국 청소년 한국어교육 참여자 모집

한국어교육 과정을 통한 중도입국 청소년의 의사소통 능력 향상

### 모집안내

- 대상 : 중도입국 청소년(9세~24세)
- 모집인원 : 20명(초급, 중급 2개반)
- 모집기간 : 2025. 2. 12.(수)부터 수시모집
- 신청방법 : QR코드 신청

(m.site.naver.com/1BpUh)

\*모집정원 초과시 신규자, 최근 입국자 우선 선발



### 교육안내

- 일정 : 2025. 3. 16.(일) ~ 11. 30.(일), 매주 일요일 10시~14시
-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장소 : 남양주 제2청사 별관 2층 한국어교실
- 교육비 : 무료(단, 교재 및 재료비 개인부담)

문의 031-553-8211 (가족생활팀)



## 우리는 마술사

**별빛극장**  
(별내동)

10월 17일 (금) 16:00  
10월 18일 (토) 10:30  
10월 18일 (토) 13:30

접수: 9월 17일~ (온라인 신청, 선착순)  
대상: 남양주 거주 가족 80명(3세 이상)  
발표: 9월30일(개별 연락)

1

온라인 교육  
우수 소감 참여자  
기념품 증정

2

쿠키만들기  
팝업북만들기

3

마술쇼 관람  
마술팩 증정

문의) 남양주시가족센터 031 553 8211

## Защита прав иностранных жителей — Кёнгидо делает ещё большой шаг вперёд! 외국인주민 권익 보장, 경기도가 더 크게 앞서간다!

Впервые в Корее на уровне как центрального, так и местн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был законодательно закреплён запрет на дискриминацию по цвету кожи и стране происхождения, поддержка жилья, медицины и образования для беженцев, а также институциональные гарантии прав для детей-иностранцев без регистрации рождения.

19 сентября на 386-й пленарной сессии Законодательного собрания провинции Кёнгидо были утверждены три постановления:

- ① «Постановление Кёнгидо о запрете расовой дискриминации и обеспечении прав человека для жителей с миграционным прошлым»
- ② «Постановление Кёнгидо о защите прав беженцев и обеспечении базовых условий жизни»
- ③ «Постановление Кёнгидо о выявлении и поддержке иностранных детей без регистрации рождения».

Принятие этих постановлений имеет большое значение, так как это первый в стране пример, когда Кёнгидо институционально закрепила основы инклюзии и защиты прав в условиях быстро меняющегося м

ногационального и иммиграционного общества.

① Постановление «О запрете расовой дискриминации и обеспечении прав человека для жителей с миграционным прошлым» (инициатор депутат Ю Ходжун) предусматривает предотвращение дискриминации, оказание помощи пострадавшим, проведение исследований, просветительскую и образовательную работу. Оно гарантирует равные права для всех мигрантов независимо от цвета кожи, страны происхождения, языка и культурного фона. В документе закреплены создание специального комитета и обязанность разработки базового плана, что обеспечивает устойчивость системы.

② Постановление «О защите прав беженцев и обеспечении базовых условий жизни» (инициатор депутат Ю Ходжун) предусматривает правовые основания для оказания комплексной поддержки беженцам, включая лиц, подавших прошение о статусе беженца и имеющих гуманитарное пребывание. В частности, это жильё, образование, медицина, трудоустройство. Создаётся Консультативный комитет по поддержке беженцев, который сможет реализовывать прог

раммы экстренной финансовой помощи, медицинской и психологической консультации, содействия трудоустройству и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ьству.

③ Постановление «О выявлении и поддержке иностранных детей без регистрации рождения» (инициатор депутат Ли Ине) вводит систему официального подтверждения факта рождения и выдачи удостоверений для таких детей. Это позволит обеспечить доступ к медицинским, санитарным, образовательным и дошкольным услугам, а также создать систему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с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ми органами и учреждениями в сферах образования, ухода и защиты прав детей.

После официального опубликования постановлений Кёнгидо планирует оперативно реализовать все необходимые последующие меры. 28 октября в Национальном собрании пройдёт форум «Укрепление защиты прав мигрантов», на котором будет обсуждаться значение принятых постановлений, а также пути распространения институциональной базы для миграционной политики и социальной интеграции по всей стране. <중략, 한글 기사 34면> 경기외국인SNS기자단

## Гадаад оршин суугчдын эрх ашгийг хамгаалах үйлсэд Гёнги аймаг илүү хүчтэйгээр тэргүүлж байна! 전국 최초 이주민 인권보장 3대 조례 제정

Арьсны өнгө болон төрсөн улсаар ялгаварлан гад уурхахыг хориглох, дүрвэгсдийн орон сууц, эмчилгээ, боловсролыг дэмжих, төрсний бүртгэлгүй гадаад хүүхдийн эрхийг тогтолцооны хүрээнд хамгаалах зэрэг заалтуудыг төв засгийн газар болон орон нутгийн захиргааны түвшинд анх удаа хуульчилсан байна.

Гёнги аймаг 9-р сарын 19-нд болсон Гёнги аймгийн хурлын 386 дугаар чуулганаар дараах гурван журам батлагдсан тухай мэдэгдэв. Үүнд: ① Гёнги аймгийн шилжин суурьшлын гаралтай оршин суугчдын арьс өнгөөр ялгаварлан гадуурхахыг хориглох ба хүний эрхийг хамгаалах журам, ② Гёнги аймгийн дүрвэгсдийн эрхийг хамгаалах болон үндсэн амьдралыг баталгаажуулах журам, ③ Гёнги аймгийн төрсний бүртгэлгүй гадаад хүүхдийг илрүүлэх ба дэмжих журам. Энэ удаагийн журам баталсан явдал нь олон соёлт, цагаачид олноор нэмэгдэж буй өнөөгийн бодит нөхцөл байдалд Гёнги аймаг хүний эрх, хамтач байдлын суурийг тогтолцооны хувьд бүрдүүлсэн улсдаа анхны жишээ болсон гэдгээрээ онцгой ач холбогдолтой юм.

Шилжин суурьшлын гаралтай оршин суугчдын арьс өнгөөр ялгаварлан гадуурхахыг хориглох болон хүний эрхийг хамгаалах журам' (Ю Хо Жүн гишүүн санаачлан өргөн барьсан) нь арьсны өнгө, төрсөн у

лс, хэл, соёлын гарал үүсэлтэй нь үл хамааран бүх шилжин суурьшигч ижил тэгш эрх эдлэхийг баталгаажуулах зорилготой бөгөөд ялгаварлан гадуурхалтаас урьдчилан сэргийлэх, хохирлыг арилгах, бодит байдлын судалгаа хийх, сурталчилгаа ба боловсролын ажлыг зохицуулсан. Мөн хороо байгуулах, үндсэн төлөвлөгөө боловсруулах үүргийг хуульчилж, тогтолцооны тогтвортой байдлыг хангажээ.

Дүрвэгсдийн эрхийг хамгаалах болон үндсэн амьдралыг баталгаажуулах журам' (Ю Хо Жүн гишүүн санаачлан өргөн барьсан) нь дүрвэгсдийн өргөдөл гаргагчид, хүмүүнлэгийн шалтгаанаар оршин суугчдад орон сууц, боловсрол, эрүүл мэнд, хөдөлмөр эрхлэлт зэрэг амьдралын бүхий л талбарт дэмжлэг үзүүлэх эрх зүйн үндсийг бүрдүүлсэн. Мөн Дүрвэгсдийн бодлого дэмжих зөвлөх хороо байгуулж, яаралтай амьжиргааны тэтгэмж, эрүүл мэнд ба сэтгэл зүйн зөвлөгөө, ажил эрхлэлт ба бизнесийн эхлэлтийг дэмжих зэрэг олон төрлийн дэмжлэгийн хөтөлбөрийг хэрэгжүүлэх боломжтой болгожээ.

Төрсний бүртгэлгүй гадаад хүүхдийг илрүүлэх болон дэмжих журам' (И Ин Э гишүүн санаачлан өргөн барьсан) нь дотоодод төрсөн боловч бүртгэгдээгүй хүүхдэд зориулан албан ёсны баталгаажуулалт хийж, баталгаажуулалтын гэрчилгээ олгох үйл явцыг

тогтолцооны түвшинд хуульчилжээ. Үүний аркцын эрүүл мэндийн үйлчилгээ, нийгмийн эрүүл мэнд, хүүхэд асаргаа, боловсрол зэрэг суурь үйлчилгээг хангаж, захиргаа, боловсрол, хүүхэд асаргаа болон хүүхдийн халамжийн байгууллагуудтай хамтын ажиллагааны тогтолцоо бүрдүүлэхээр төлөвлөж байна.

Гёнги аймаг журам батлагдсаны дараа хэрэгжүүлэх шаардлагатай дараагийн арга хэмжээг хурдан шуурхай хэрэгжүүлэхээр төлөвлөж байна. Ирэх 10-р сарын 28-нд Үндэсний хурлын гишүүдийн танхимд 'Шилжин суурьшигчдын хүний эрхийг хамгаалах хүчийг нэмэгдүүлэх хэлэлцүүлэг'-ийг зохион байгуулж, журам батлагдсан ач холбогдлыг хуваалцаж, шилжин суурьшигчдын бодлого ба нийгмийн интеграцийг дэмжих институцийн суурийг улс даяар дэлгэрүүлэх арга замыг эрэлхийлэх юм.

Гёнги аймгийн Цагаач иргэдийн нийгмийн бодлогын хэлтсийн дарга Хо Ён Гил "Эдгээр журам нь зүгээр нэг тогтолцоо биш бөгөөд нутгийн иргэд болон шилжин суурьшигчид ялгаварлан гадуурхалгүй хамт оршихын тулд хийсэн нийгмийн амлалт" гэж онцлоо. Мөн "Дараагийн арга хэмжээг хурдан шуурхай хэрэгжүүлж, Гёнги аймаг шилжин суурьшигчдын нийгмийн бодлогыг тэргүүлэх болно" гэжээ.

<한글 기사 34면>

경기외국인SNS기자단

www.kdca.go.kr

베트남어

# Điều tra dịch tễ bệnh lao là gì?



“Nếu đã tiếp xúc với bệnh nhân lao điều quan trọng nhất là phải tham gia điều tra dịch tễ để làm xét nghiệm.”



## 01 Bệnh lao là gì?



- Bệnh lao là do vi khuẩn lao có trong cơ thể hoạt động và sinh sôi phát sinh thành bệnh truyền nhiễm. Khi người mắc bệnh lao ho, hắt hơi hoặc nói chuyện, vi khuẩn lao sẽ phát tán vào không khí và có thể lây nhiễm cho những người xung quanh, như gia đình và bạn bè.
- Các triệu chứng của bệnh lao bao gồm ho hơn hai tuần, sốt, đổ mồ hôi lạnh khi ngủ, đau ngực, sụt cân, mệt mỏi, chán ăn và ho ra máu. Giai đoạn đầu của bệnh cũng có thể không có triệu chứng.

## 02 Nhiễm lao tiềm ẩn là gì?



- Nhiễm lao tiềm ẩn là tình trạng trong cơ thể bị nhiễm vi khuẩn lao nhưng chúng không hoạt động và sinh sôi.
- Người đang trong tình trạng nhiễm lao tiềm ẩn sẽ không có triệu chứng và vi khuẩn cũng không lan truyền cho người khác.

## 03 Điều tra dịch tễ bệnh lao là gì?



- Nếu phát hiện bệnh nhân lao truyền nhiễm tại trường học, nơi làm việc hoặc cơ sở tập thể cần phải tiến hành điều tra dịch tễ với những người có tiếp xúc với người bệnh.
- Nhanh chóng thông qua việc điều tra dịch tễ để ngăn chặn bệnh lao phát tán, tiến hành điều trị nhiễm lao tiềm ẩn, tiếp theo là phòng ngừa phát triển thành bệnh lao.

## 04 Người tiếp xúc là gì?



- Là người ở trong cùng một không gian tiếp xúc với bệnh nhân lao trong khoảng thời gian dài được coi là người có nguy cơ cao sẽ lây nhiễm bệnh lao.

## 05 Xét nghiệm người tiếp xú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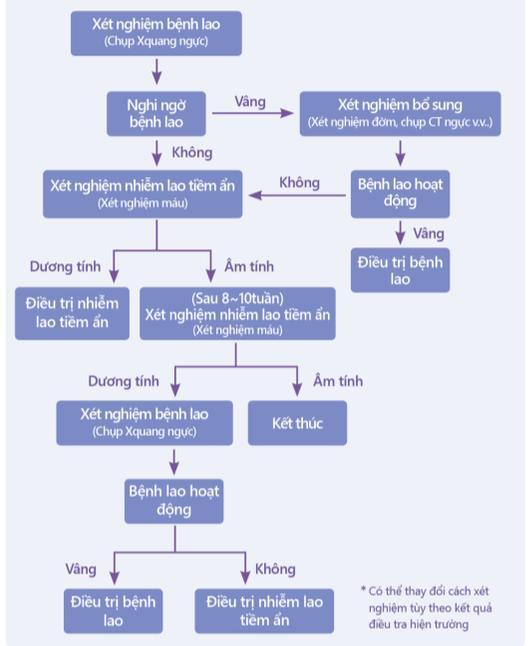
### ① Xét nghiệm bệnh lao

Để xét nghiệm xem có phải là bệnh lao hoạt động hay không tất cả những người tiếp xúc sẽ được chụp X-quang ngực để kiểm tra. Nếu kết quả chụp X-quang nghi ngờ có bệnh lao hoặc có triệu chứng của bệnh lao như ho, có đờm v.v cần phải làm xét nghiệm đờm.

### ② Xét nghiệm nhiễm lao tiềm ẩn

Xét nghiệm có phải nhiễm lao tiềm ẩn hay không bằng cách Xét nghiệm phản ứng da Tuberculin và Xét nghiệm bài tiết Gamma Interferon(xét nghiệm máu). Nếu kết quả xét nghiệm dương tính có nghĩa là đã bị lây nhiễm vi khuẩn lao.

### • Cách xét nghiệm bệnh lao và nhiễm lao tiềm ẩn



## PHÒNG NGỪA BỆNH LAO TRONG SINH HOẠT HÀNG NGÀY



1. Nhất định phải giữ phép tắc khi ho cho đúng cách
  - Khi ho dùng tay áo che mũi và miệng
  - Sau khi ho phải rửa tay trên 30 giây
2. Nếu liên tục ho có đờm trên 2tuần cần phải làm xét nghiệm bệnh lao
3. Khi điều tra dịch tễ cần làm xét nghiệm

### Giải đáp thắc mắc và tài xuống tài liệu giáo dục,quảng bá

Tìm hiểu về điều tra dịch tễ bệnh lao, v.v.

Trang chủ Cơ quan kiểm soát phòng ngừa dịch bệnh  
[www.kdca.go.kr](http://www.kdca.go.kr)

Liên quan tài liệu giáo dục v.v..

Trang chủ ZERO bệnh lao  
[www.kdca.go.kr/tbzero](http://www.kdca.go.kr/tbzero)

<Trang chủ Bộ giáo dục>Hệ thống thông tin du học Hàn Quốc  
[www.studyinkorea.go.kr](http://www.studyinkorea.go.kr)

<Trang web của Bộ Tư pháp>Trụ sở Chính sách Đối ngoại và Nhập cư  
[www.immigration.go.kr](http://www.immigration.go.kr)

<Hi Korea>  
[www.hikorea.go.kr](http://www.hikorea.go.kr)

## 06 Câu hỏi thường gặp



### Q Nhiễm lao tiềm ẩn có cần phải điều trị không?

A Nên điều trị cho những người tiếp xúc vì họ có nguy cơ mắc bệnh lao cao hơn dân số thông thường. Hoàn thành điều trị nhiễm lao tiềm ẩn có thể ngăn ngừa sự phát triển của bệnh lao tới 90%.

### Nếu điều trị nhiễm lao tiềm ẩn sẽ ngăn ngừa được 90% bệnh lao

Nếu việc điều trị được hoàn thành trong thời gian được chỉ định bằng phương pháp điều trị tiêu chuẩn, Sẽ ngăn ngừa được tối đa đến 90% việc phát triển thành bệnh lao

\*Rifampin 4tháng (4R), isoniazid/rifampin 3tháng (3HR) được khuyến nghị đầu tiên, liệu pháp isoniazid 9tháng (9H) được xem xét tùy chọn



\*Nguồn: Kim Joo-sang, phân tích hiệu quả trung và dài hạn của dự án sàng lọc bệnh lao tiềm ẩn quốc gia và quản lý các nhóm có nguy cơ cao. Dịch vụ nghiên cứu chính sách của Cơ quan Phòng ngừa và Kiểm soát Dịch bệnh năm 20

### Q Điều trị bệnh lao hoặc lao tiềm ẩn chi phí cao hay không?

A Nếu có tham gia bảo hiểm y tế, bạn sẽ được hỗ trợ toàn bộ (miễn) chi phí tự chi trả liên quan đến việc điều trị bệnh lao và nhiễm lao tiềm ẩn.

### Q Người tiếp xúc làm xét nghiệm bằng cách nào?

A Nếu trong cơ sở tập thể phát hiện có bệnh nhân mắc bệnh lao thì trung tâm y tế trực thuộc khu vực đó phụ trách tiến hành điều tra dịch tễ học để xác định đối tượng đã tiếp xúc và làm xét nghiệm. Những người tiếp xúc sẽ được trung tâm y tế thông báo về ngày và địa điểm xét nghiệm, xét nghiệm sẽ được miễn phí.

### Q Người tiếp xúc nhất định phải làm xét nghiệm hay sao?

A Cuộc điều tra dịch tễ bệnh lao đang được tiến hành theo Điều 18 của 「Đạo luật phòng chống bệnh truyền nhiễm」 Điều 10 và điều 19 của 「Đạo luật phòng chống bệnh lao」. Những người cùng ở trong một không gian với bệnh nhân lao sẽ bị nhiễm vi khuẩn nên nguy cơ bị lây nhiễm bệnh lao sẽ rất cao vì vậy nhất định phải tham gia làm xét nghiệm.

### Q Nhiễm lao tiềm ẩn nếu không điều trị cần phải làm gì?

A Nếu người tiếp xúc không được điều trị nhiễm lao tiềm ẩn thì kể từ thời điểm được chẩn đoán nhiễm lao tiềm ẩn trong vòng 1 năm mỗi 3 tháng 1 lần cần phải chụp Xquang ngực để theo dõi có phát triển thành bệnh lao hay không.





남양주 필리핀 공동체, 즐거운 농구로 하나돼요!

###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필리핀살롱공동체, 3개월 진행 농구리그 폐막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는 지난 7월부터 시작된 필리핀 농구리그가 최근 10회에 걸친 장기 레이스를 마치고 폐막했다고 밝혔다.

올해 우승팀은 비스탁 팀으로 우승 상금과 함께 트로피와 메달을 획득했다. 센터 관계자는 “매년 치르는 행사

이지만 유독 더위가 기승을 부렸던 이번 농구리그를 다친 사람 없이 무사히 마치게 되어 감사하다”며 “매년 농구리그를 계획하고 준비, 운영해주신 필리핀살롱공동체에게도 감사한다”고 말했다.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는 지역사회 외국인주민의 복리를 위해 최선

을 다하고 있다. 오는 23일에는 센터 실내체육관에서 이주배경아동청소년 지역사회 돌봄환경 조성 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다. 다문화가족도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보자.

이지는 기자  
자료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 남양주시, 브랜드 테마역사 개장 '다산역에서 만나는 다산'

### 정약용 철학 담은 브랜드 공간 및 시민참여 갤러리 공간 조성 정식 공개



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지난 20일 8호선 다산역 내에 다산 정약용 선생을 주제로 한 '다산역 브랜드 테마역사'를 조성하고 정식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번 테마역사는 다산역 6번 출구 방향 지하 통로 40m 구간에 조성됐다.

시는 '정약용의 도시, 남양주'를 표방하는 도시 브랜드 정체성을 현대적으로 담아내 시민과 이용객이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이날 행사에서 주광덕 시장은 직접 현장을 라운딩하며 다산역 테마역사 공간

과 시민참여 갤러리 등을 둘러봤다.

테마역사는 △정약용 소개 구간 △정약용 브랜드맵 구간 △시민참여 갤러리로 구성됐다. 소개 구간은 다산동 명칭의 유래가 된 '다산' 글자와 영정 이미지를 입체적으로 표현했고, 브랜드맵 구간은 정약용의 저술과 발명품을 서가 형태로 배치해 브랜드 키워드를 시각화했다.

시민참여 갤러리에는 정약용의 업적을 담은 '다산 문자도'(작가 신미향)와 학생들이 폐장난감으로 만든 아트 업사이클링 작품이 전시됐다.

'정약용'과 '거중기'를 주제로 한 이 작

품은 다산 한강초 4학년과 지난 6월 정약용 상징물 제막식에 참여한 학생들이 각각 완성했다.

주광덕 시장은 “다산역 이름에 걸맞은 테마역사를 조성한 만큼 시민과 방문객이 다산 선생의 정신을 쉽게 접할 수 있는 역사문화 플랫폼으로 자리잡길 기대한다”며 “시는 앞으로도 남양주 곳곳에 다산 브랜드 공간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남양주 유스호텔 '정약용 펀그라운드'가 제24회 대한민국 안전대상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상 수상 시설로 선정됐다.

정약용 펀그라운드는 연간 4만 3천여 명이 찾는 청소년 숙박·체험 시설로,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AI 기반 위험 상황 감지 모니터링 시스템'을 자체 개발해 운영한 점이 높게 평가돼 수상으로 이어졌다.

송하성 기자

## 정약용유적지 야간 개방 '여유당 야행'



남양주시는 오는 10월 8일부터 21일까지 조안면 정약용유적지에서 야간 문화행사 '2025 여유당 야행'을 개최하고, 특별 기획 프로그램인 '여유당 별빛산책' 참가자 사전 접수를 24일부터 시작한다.

'여유당 야행'은 정약용유적지를 빛과 체험이 어우러진 문화 향유의 장으로 재조명하기 위해 기획됐다. 시는 유적지 전역에 야간 경관조명을 설치해 가을밤의 정취를 더하고,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관람하며 정약용의 정신과 유산을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야행 기간 중 10월 18일에는 '제39회 정약용문화제'가 열리는 날과 맞물려, '여유당 별빛산책'이 함께 운영된다.

사전 신청자 300명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해당 프로그램은 9월 24일부터 '남양주시 통합예약포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선착순으로 접수한다.

별빛산책은 △하피침을 주제로 한 버스킹 공연 △나비 마중등불 만들기 체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준비된다. 참가자들은 정약용의 가족 이야기를 따라가며 유적지에서 특별한 가을밤을 경험하게 된다.

남양주시는 정약용유적지를 활용한 야간 문화행사가 시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정약용의 의미를 새롭게 되새기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유적지의 역사적 가치와 의미를 새롭게 조명하는 프로그램”이라며 “특히 '여유당 별빛산책'은 관람객이 역사와 문화를 체험하는 특별한 시간인 만큼 많은 시민이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송하성 기자



## 다양한 가족 희망공간 '카페, 다이음' 광주시가족센터, 'Welcome Day' 오픈 행사 진행

광주시가족센터(센터장 이수희)는 지난 9월 16일 광주시가족센터 모두가어울림 1층(광주시 역동)에 커뮤니티 기반 카페 '카페, 다이음'의 문을 열고 시범운영에 들어갔다.

이날 첫 출발을 알리는 Welcome Day 행사에는 광주시 관계자, 광주시의회 의원, 다문화가족 등 50여 명이 참석해 개소를 축하하고 격려를 보냈다.

'카페, 다이음'은 결혼이민자 바리스타들이 참여해 지역사회와 더불어 성장하는 공간으로 기획됐으며, 단순한 카페를 넘어 다문화 감수성을 나누는 열린 소통의 장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다이음'이라는 이름에는 '다양한 문화와 사람을 이어간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특히, 결혼이민자들이 전문성을 발휘하고 자립 기회를 확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동시에 지역 주민에게는 문화적 다양성을 체험할 기회를 제공해 나갈 방침이다.

이수희 센터장은 개소식에서 "카페, 다이음에서 결혼이민자들의 꿈이 실현되는 뜻깊은 순간을 함께해주셔서 감사하다"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에서 모두가 어울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시 관계자는 "광주시가족센터가 운영하는 카페, 다이음의 시범운영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가장 맛있는 카페, 가장 기분 좋은 공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카페, 다이음"은 시범운영 기간(25.9.16.~11.27.) 동안 매주 화~목요일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1시30분까지 운영한다. 이 기간에는 음료가 무료로 제공된다.

김영의 기자

## 광주 예비학부모 위한 '부모교육' 진행

### 광주시가족센터, 초등 예비학부모 학교생활 대비해 운영



광주시가족센터(센터장 이수희)는 지난 9월 13일 예비학부모를 위한 부모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부모교육은 오전 시간대에 진행돼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 앞둔 학부모는 물론 8세 자녀를 둔 부모들도 실제적이고 유용한 정보를 받을 수 있게 했다. 교육에는 초등학교 생활 전반을 아우르는 구체적인 안내도 포함돼 예비학부모들이 학교생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했다. 오후에는 경기도청의 지원을 받아 다문화 및 외국인 가정을 대상으로 '진학과정

설명회'를 진행했다. 참석한 학부모들이 특히 관심을 가질 고교학점제, 다문화 전형 등 중·고등학교 진학 관련 제도를 중심으로 교육을 구성해 자녀가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이수희 센터장은 "자녀의 진학을 앞둔 가정에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교육을 통해 교육과정과 진학 과정을 충분히 전달할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도 생애주기별로 다양한 가족을 대상으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해, 가족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가족센터는 여성가족부, 경기도, 광주시의 지원을 받아 사단법인 한국지역봉사회가 위탁 운영하는 가족복지 전문기관으로, 가족관계 증진, 가족 돌봄, 가족생활, 지역 공동체와의 연계 프로그램은 물론 아이돌봄 지원사업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김영의 기자

## 광주시가족센터 이중언어 정예진, 전국이중언어말하기대회 최우수상



지난 9월 22일 동국대학교 남산홀에서 열린 '제4회 날마다좋은날 전국이중언어말하기대회'에서 광주시가족센터 소속 정예진(초등 5학년, 12세) 학생이 최우수상을 받았다.

이번 대회는 전국의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참가해 한국어와 부모 나라의 언어를 활용해 '이중언어의 의미'를 발표하는 자리로, 다양한 언어와 문화를 가진 학생들이 열띤 경연을 펼쳤다.

정예진 학생은 발표 주제 '언어, 세상을 이어주는 다리'를 통해 언어가 단순한 소통수단을 넘어 서로 다른 사람과 사회를 연결하는 다리임을 진솔하게 전달했다. 특히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것이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길임을 강조하였다.

정예진 학생이 중국어와 한국어를 능숙하게 오가며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풀어낸 점이 심사위원과 청중의 큰 호응을 얻었다.

광주시가족센터 이수희 센터장은 "이번 수상은 정예진 학생 개인의 성취를 넘어, 다문화사회가 지향해야 할 가치와 미래를 보여주는 소중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이중언어 역량을 발휘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영의 기자

## 광주시가족센터, 중도입국 학생 위한 내일을 그리는 교실 운영

광주시가족센터는 근지암중학교와 협력해 9월 둘째 주부터 4회기에 걸쳐 중도입국 학생 15명을 대상으로 진로 탐색 및 성장 프로그램인 '내일을 그리는 교실'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프로그램은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을 배려하여 활동 중심으로 진행된다. 학생들이 다양한 놀이를 즐겁게 참여하면서 자연스럽게 자신의 강점과 흥미를 발견하도록 돕고 있다. 또한, 활동 속 작은 성취 경험들을 통해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자기효능감을 높이는 데에도 중점을 두고 있다.

프로그램 마지막 회기에서는 학생들이 가장 관심이 있는 직업인 요리사와 조향사를 초청하여 직업에 대한 강연과 궁금한 점을 질문하며 구체적인 정보를 얻고, 직접 체험을 통해 진로 탐색에 대한 동기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영의 기자

# Bộ Tư pháp đã phát hiện 4.617 người nước ngoài cư trú và làm việc bất hợp pháp, cùng 991 chủ sử dụng lao động bất hợp pháp.



<Trường hợp 1> Cục Xuất nhập cảnh Seoul đã bắt giữ một người nước ngoài, người này mở văn phòng tại thành phố Ansan, quảng cáo trên mạng xã hội để tuyển dụng phụ nữ nước ngoài đang cư trú tại Hàn Quốc, sau đó cung cấp họ làm nhân viên tại các quán karaoke ở Seoul và các khu vực tỉnh Gyeonggi hoặc môi giới mại dâm.

<Trường hợp 2> Văn phòng Xuất nhập cảnh Người nước ngoài Yangju đã tiến hành kiểm tra tại nơi ở của người nước ngoài ở Paju do một công ty cung ứng lao động cung cấp, sau khi nhận được báo cáo của cư dân về việc gây ồn ào và làm náo loạn vào ban đêm, và đã phát hiện 42 người nước ngoài làm việc bất hợp pháp.

Bộ Tư pháp cho biết, từ ngày 12/8 đến 12/9, trong vòng 1 tháng, đã tiến hành chiến dịch truy quét tập trung đối với người nước ngoài cư trú bất hợp pháp, phát hiện tổng cộng 4.617 người và đã thực hiện các biện pháp như trục xuất bắt buộc. Những người nước ngoài bị truy quét lần này là những người cạnh tranh việc làm của người dân bình thường hoặc đe dọa an toàn công cộng.

Đặc biệt, nhiều người nước ngoài điều khiển xe gắn biển số giả (대포차) đã bị kiểm tra, vì hành vi này đặt cả người dân bản địa lẫn người nước ngoài vào tình thế nguy hiểm. Người nước ngoài lái xe gắn biển số giả gây ra các vấn đề như ▲vi phạm giao thông ▲nợ tiền phạt ▲không thực hiện kiểm định xe ▲không tham gia bảo hiểm bắt buộc, và trong trường hợp xảy ra tai nạn giao thông thì sẽ không ai được bồi thường.

Bộ Tư pháp đã tập trung kiểm tra và xử lý các xe không có giấy phép và xe mượn tên, phát hiện 38 người lái xe nhập cư bất hợp pháp và 6 chiếc xe mượn tên.

Ngoài ra, trong thời gian tập trung thanh tra lần này, để bảo vệ việc làm của người lao động phổ thông, cơ quan chức năng đã tập trung kiểm tra các hoạt

động như giao hàng, dịch vụ giao hàng bất hợp pháp (shipper), ngành xây dựng, trung tâm giới thiệu việc làm, cũng như môi giới lao động bất hợp pháp qua mạng xã hội. Kết quả, đã phát hiện 32 người lao động nước ngoài làm việc bất hợp pháp trong lĩnh vực giao hàng và 136 người trong lĩnh vực xây dựng.

Các cơ quan đã tập trung kiểm tra các câu lạc bộ, cơ sở giải trí, nhà trọ... dành riêng cho người nước ngoài, nơi có khả năng xảy ra tội phạm cao, và đã phát hiện 776 người. Ngoài ra, tại các nhà máy và doanh nghiệp sản xuất, đã phát hiện 3.635 người nước ngoài. Tổng cộng 969 chủ lao động thuê người nước ngoài trái phép và 22 người môi giới việc làm/nhập cảnh trái phép cũng bị phát hiện và xử lý theo pháp luật.

Tuy nhiên, cũng giống như việc nhiều người bị sốc khi thấy cảnh người Hàn Quốc bị Cục Hải quan và Di trú Mỹ (ICE) kiểm tra gần đây, tôi mong rằng quyền con người của những người nước ngoài cư trú bất hợp pháp tại trong nước cũng sẽ được quan tâm nhiều.

<인터넷에서 경기외국인SNS기자단을 검색하세요>  
경기외국인SNS기자단

## ปราบปรามอย่างเข้มงวดต่อชาวต่างชาติที่ไม่ได้ขึ้นทะเบียน ซึ่งขั้รณเถื่อนที่เป็นภัยต่อความปลอดภัยของประชาชน

<กรณีที่ 1> สำนักงานตรวจคนเข้าเมืองกรุงโซลได้จับกุมชาวต่างชาติในเมืองอันซาน ที่เปิดสำนักงานและใช้โฆษณาผ่าน SNS เพื่อชักชวน ผู้หญิงชาวต่างชาติที่พำนักอยู่ในเกาหลี ให้ไปทำงานเป็นพนักงานบริการในคาราโอเกะในกรุงโซลและจังหวัดคยอกกี รวมถึงมีการจัดหา เพื่อการค้าประเวณีอีกด้วย

<กรณีที่ 2> สำนักงานตรวจคนเข้าเมืองยางจู ได้เข้าตรวจสอบตามการร้องเรียนของประชาชนว่า ชาวต่างชาติที่พักอาศัยอยู่ในที่พักของ บริษัทจัดหางานในเมืองพาจู ส่งเสียงดังเอะอะในเวลากลางคืน จากการปราบปรามในครั้งนี้ตรวจพบชาวต่างชาติทำงานอย่างผิดกฎหมายจำนวน 42 คน

กระทรวงยุติธรรมเปิดเผยว่า ตั้งแต่วันที่ 12 สิงหาคม ถึง 12 กันยายน เป็นเวลา 1 เดือน ได้ดำเนินการปราบปรามชาวต่างชาติที่พำนัก อย่างผิดกฎหมาย โดยจับกุมได้ทั้งหมด 4,617 คน และได้ดำเนินมาตรการ เช่น การเนรเทศออกนอกประเทศ เป็นต้น

ชาวต่างชาติที่ถูกกระทรวงยุติธรรมปราบปรามในครั้งนี้เป็นผู้ที่แย่งงานของประชาชนทั่วไปหรือเป็นผู้ที่เป็นภัย

ต่อความปลอดภัย ของประชาชน

โดยเฉพาะอย่างยิ่ง มีชาวต่างชาติที่ถูกจับกุมจำนวนมากจากการขับขีรถเถื่อน ซึ่งเป็นการกระทำที่ทำให้ทั้งชาวเกาหลีและชาวต่างชาติตกอยู่ในความเสี่ยง ชาวต่างชาติที่ขับขีรถเถื่อนมักก่อปัญหา เช่น ▲การทำผิดกฎจราจร ▲การค้างชำระค่าปรับ ▲ไม่เข้ารับการตรวจสภาพรถ ▲ไม่ทำประกันภาคบังคับ และหากเกิดอุบัติเหตุทางจราจรขึ้นก็จะมีใครได้รับการชดเชยเลย

ดังนั้น กระทรวงยุติธรรมจึงได้ดำเนินการปราบปรามเป็นพิเศษต่อผู้ขับขีที่ไม่มีใบอนุญาตและรถเถื่อน โดยตรวจพบผู้ขับขีที่พำนักอย่างผิด กฎหมาย 38 คน และรถเถื่อน 6 คัน

นอกจากนี้ ในช่วงการปราบปรามอย่างเข้มงวดครั้งนี้ เพื่อปกป้องงานของประชาชนทั่วไป กระทรวงยุติธรรมได้ตรวจสอบอย่างเข้มงวดถึง การจ้างงานผิดกฎหมายในหลายด้าน เช่น การจัดส่งพัสดุ, การส่งอาหารผิดกฎหมาย (ไรเดอร์), การก่อสร้าง, บริษัทจัดหางาน , และการจัดหางานผิดกฎหมายผ่าน SNS ผลการตรวจสอบพบชาวต่างชาติที่ทำงานผิดกฎหมาย 32 คน ในสาขาการจัด

ส่งพัสดุและอาหาร และ 136 คน ในสาขาการก่อสร้าง

ได้มีการกวาดค้นเข้มงวดต่อสถานบันเทิงและคลับเฉพาะชาวต่างชาติ, โมเทล และสถานประกอบการที่มีความเสี่ยงสูงต่อการเกิดอาชญากรรม ของชาวต่างชาติ โดยจับกุมชาวต่างชาติ 776 คน และนอกจากนี้ ยังจับกุมชาวต่างชาติในภาคอุตสาหกรรม เช่น โรงงานผลิต อีก 3,635 คน

ตรวจพบนายจ้างที่จ้างงานชาวต่างชาติอย่างผิดกฎหมาย 969 ราย และผู้จัดหางานหรือช่วยเข้าประเทศโดยผิดกฎหมาย 22 ราย โดยได้จับกุมและลงโทษตามกฎหมายแล้ว

อย่างไรก็ตาม เนื่องจากสถานการณ์ชาวเกาหลีที่ถูกสำนักงานตรวจคนเข้าเมืองและศุลกากร (ICE) ในสหรัฐอเมริกาจับกุมเมื่อเร็วๆ นี้ สร้างความตกใจให้กับหลายคน หวังว่ากระทรวงก็ควรให้ความสำคัญกับการคุ้มครองสิทธิมนุษยชนของชาวต่างชาติที่พำนักโดยไม่ได้ ขึ้นทะเบียนในประเทศเกาหลี ด้วยเช่นกัน

<인터넷에서 경기외국인SNS기자단을 검색하세요>  
경기외국인SNS기자단



광주시청 031-760-2000 광주시가족센터 031-798-7141 세상의빛이주민센터 031-767-8118 광주고용센터 031-799-2760 씨알여성회부설성폭력상담소 031-797-7188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031-492-9347 범죠탈 112 간첩신고 111 화재, 응급환자발생 및 병원정보 119 보건복지콜센터 129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이주여성 긴급지원센터 1577-1366 시민금융통합지원센터 1397 전기고장신고 123 수도고장신고 121 가스사고신고 1544-4500 법률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전국전화번호안내 114 세계시간안내 116 일기예보안내 131

### 직업체험 통해 재능과 꿈 발견

#### 광주시가족센터, 다문화 자녀 진로지원 운영



광주시가족센터는 지난 9월 13일 다문화가정 자녀들을 대상으로 한국 잡월드 청소년관에서 직업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날 프로그램은 진로설계 지원사업 일환으로 진행됐으며, 초등학교 5학년부터 중학교 1학년까지의 학생 20명이 참여했다. 참여 학생들은 평소 접하기 힘든 직업 세계를 직접 체험함으로써 자신에게 어울리는 직업을 탐색하고 진로의 폭을 새롭게 그려보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청소년관 내 다양한 체험관 중 원하는 분야를 골라 실제 근무 환경을 유사하게 조성한 체험실에서 전문 요원의 지도로 역할놀이(Role-Playing)방식의 두 가지 직업을 1시간씩 집중 체험했다.

의료, 방송, 공공행정 등 여러 분야가 제공됐으며, 학생들은 실습 도구를 사용해보고, 업무 절차를 직접 따라 해보는 등 실질적이고 생생한 체험에 큰 흥미를 보였다.

직업체험 후에는 자신의 흥미와 잠재 능력을 보다 명확히 알아볼 수 있

도록 놀이형 진로검사 '재능 스펙트럼'을 진행했다. 이 검사는 하워드 가드너의 다중지능이론에 기반하여 언어, 논리, 수학, 신체 운동, 음악, 공간, 자연 관찰, 자기 이해, 대인 관계 등 8가지 영역의 체험을 통해 학생 각자의 강점 재능을 탐색하는 형태였다. 학생들은 다양한 활동을 통해 자신이 어떠한 재능에 흥미를 느끼고 또 뛰어난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체험에 참여한 한 학생은 "나에게 맞는 직업을 체험하고 탐험할 수 있어 좋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학생은 "진로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었다"며 재참여 의사를 밝혔다.

이수희 센터장은 "이번 직업체험은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단순히 직업을 체험하는데 그치지 않고 자신의 가능성과 역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진로를 보다 구체적으로 고민해볼 유익한 기회가 되었다"라며 "앞으로 진로체험 프로그램 외에도 자녀들의 정서적 안정과 자아 성장에 도움이 되는 심리상담 지원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김영의 기자

### 현장 체험으로 한국문화 친근하게

#### 광주시가족센터, 결혼이민자 국내적응 체험



광주시가족센터(센터장 이수희)는 지난 9월 16일과 18일, 23일 3일간 결혼이민자 한국어교육 수강생을 대상으로 한국사회 이해 및 적응력 향상을 위한 국내적응 현장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우리 떡에 현대적인 감각을 더한 앙금 꽃 컵설기 체험이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앙금으로 카네이션과 애플블라썸을 만들어 컵설기에 올려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한식 디저트를 완성했다.

총 53명의 수강생이 참여해 적극적으

로 활동에 임했으며, 단순한 요리 체험을 넘어 한국의 전통문화를 이해하고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다.

체험에 참여한 한 수강생은 "손으로 꽃을 만들다 보니 마음이 차분해지고, 완성된 떡을 보니 뿌듯하다. 가족과 함께 나누고 싶다"고 말했다. 또 다른 수강생은 "예쁜 한국 디저트를 직접 만들어 보니 한국 문화가 더 친근하게 다가왔다"고 했다.

김영의 기자

### 독자여러분께 알립니다

경기다문화뉴스는 경기도와 시군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다문화가족의 생활정보 및 정책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발행되는 신문입니다. 결혼이주여성, 외국인 주민 등 구독을 원하는 다문화가족 혹은 구독을 원치 않는 분 그 밖에 주소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경기다문화뉴스로 연락해 주세요.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죽전대로 444, 7층(주네브 썬월드 메디컬동) 8호
- 전화 031-8001-0211(추석 이후 통화가능) ● 문자 010-2455-9331

신문발간을 위해 애써주시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안산시, 부천시, 시흥시, 김포시, 평택시, 수원시, 화성시, 파주시, 남양주시, 용인시, 광주시, 오산시, 하남시, 구리시, 양평군, 과천시, 연천군, 광명시

경기다문화뉴스

### 다문화가족자녀 기초학습지원사업

## GO, 시간여행! 역사탐험대 모집!!

역사를 '좋아하게' 만드는 특별한 기회! 놓치지 마세요~!!

<b>모집대상</b> 다문화가족자녀 초등 3, 4, 5, 6학년 20명 ★ 외국인가정,종도입국 자녀 신청가능 ★ 기초학습대상자, 3회기 모두 참여자 우선 선정	<b>내용</b> 1회기 - 한국사 강의 / 센터 2, 3회기 - 현장체험 / 외부 (경복궁, 국립중앙박물관) ★ 전세버스 이용 함께 출발, 점심 제공! <b>신청방법</b> 자비기쁨으로 신청!! [프로그램안내]-[신청]-[역사체험 신청하기]-[신청완료]
<b>모집기간</b> 9월29일(월)~10월19일(일) 선착순!! * 10월 21일(화)부터 순차 참여 확정연락드리며, 참여확정 연락을 받지 않을 시 신청이 취소됩니다.	

"재미있는 역사여행~ 함께 떠나자~!!"

#### [역사체험 일정]

- ✓ 10월 25일 (토) 10시~12시 '史(사)통팔달 한국사' 강의
- ✓ 10월 30일 (목) 09시~16시 경복궁
- ✓ 11월 06일 (목) 09시~16시 국립중앙박물관  
 ★ 학교에 체험학습신청서 제출 후 참여가능  
 ★ 일정 및 시간은 날씨와 센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문의 070-4706-3618



## 다문화가정 함께 1박2일 오감 체험

### 양평군가족센터, 가족역량강화 프로그램 진행

양평군가족센터(센터장 박우영)는 지난 9월 10일부터 11일까지 1박 2일간 다문화가정 13가족을 대상으로 전 북 고창 상하농원에서 가족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영산조용기자선재단의 후원으로 운영됐으며, 다문화가족을 위한 문화 체험과 정서적 교류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참여 가족들은 치즈 만들기 및 유가공 공정 견학, 동물 먹이 주기 체험 등 다양한 오감 체험 및 동물매개활동을 통해 자녀의 사회성 발달을 도모하고, 가족 간의 유대감과 정서적 안정을 높이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저

녁에는 바비큐와 스파 등 가족 휴식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일상의 피로를 해소하고, 부모-자녀 간의 긍정적 상호작용을 촉진하였다.

처음으로 장거리 가족여행을 경험한 일부 참가자는 “아이들과 함께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라며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준 가족센터와 후원기관에 감사하다”고 전했다. 양평군가족센터는 앞으로도 다문화가정을 포함한 다양한 가족의 복지 욕구(needs)를 반영한 맞춤형 가족 지원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영의 기자

## 지평면 새마을회, 추석맞이 따뜻한 '송편 나눔 봉사활동'

양평군 지평면 새마을회(회장 백순정)는 지난 9월 23일 민족의 큰 명절 추석을 맞아 회원 3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한 '송편 나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회원들은 직접 정성껏 빚은 송편을 준비하여 관내 독거노인, 다문화가정, 취약계층 가구 등에 전달하며 따뜻한 명절 인사를 전했다. 이번 나눔 활동은 명절을 홀로 보내는 이웃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돕고,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뜻을 모아 마련됐다.

백순정 지평면 새마을회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이웃들이 한가위를 따뜻하게 보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온정을 나누겠다”고 밝혔다.

홍종분 지평면장은 “오늘과 같은 정성 어린 나눔이 우리 지역을 더욱 따뜻하게 만든다”라며 “어려운 이웃을 위한 새마을회의 꾸준한 봉사와 헌신에 깊이 감사드리며, 면에서도 다양한 복지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평면 새마을회는 매년 명절을 비롯해 다양한 나눔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더불어 사는 따뜻한 지역 공동체 만들기에 힘쓰고 있다.

김영의 기자

## 건강과 즐거움 함께한 '부부명랑 운동회'...양평군가족센터, 부부특성화지원사업

양평군가족센터(센터장 박우영)는 지난 9월 21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물맑은양평체육관에서 양평군 관내 부부 120명을 대상으로 '부부명랑 운동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 신규사업으로 진행된 부부특성화지원사업의 일환인 '부부명랑 운동회'는 부부 중심의 특화된 활동으로 이웃 주민 간 공동체 활동을 통해 심층 관계망을 형성하고자 기획됐다. 특히 자녀 양육에 매진해 온 부부들에게는 모처럼 부부만의 시간을 누릴 기회를 제공하며, 이

웃과 함께 어울리는 신체 활동을 통해 건강한 지역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는 4개 팀으로 구성해 진행됐다. 행사는 입장식과 준비체조를 시작으로 ▲타이타니 게임 ▲홀라후프 전달하기 ▲부부 에어봉 달리기 ▲부부리보게임 등 부부와 팀의 협력을 강조한 게임과 ▲농구 ▲배드민턴 ▲퍼팅 등 다양한 스포츠 종목으로 진행하며 자연스럽게 팀워크를 발휘하고 서로를 응원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풍성한 경품과 이벤트 선물 등 다채로운 즐길거리

로 즐거움을 더했다. 박우영 센터장은 “부부명랑 운동회를 통해 부부의 가치를 재인식하며 정체성을 회복하고, 지역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활동을 통해 가족의 가치를 높이며 지역 공동체 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양평군가족센터는 앞으로도 지역사회 내 가족 친화 문화 조성을 위해 다양한 가족 사업을 펼쳐 나갈 예정이다.

김영의 기자





## 결혼이주여성에 유용한 한글교재 전달 하남시가족센터, 시원스쿨 도서 전달식 가져

하남시가족센터(센터장 문병용)는 지난 9월 23일 오전 10시30분 한글날(10월 9일)을 기념해 외국어 교육 전문 브랜드 시원스쿨의 도서 전달식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시원스쿨 한국어와의 뜻깊은 협력을 기념하고, 한국어 중·고급반 학습자들과 함께 기증 도서를 활용한 학습 체험 활동도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시원스쿨 한국어 관계자를 비롯해 문병용 센터장, 정희원 사무국장, 하남시다문화가족후원회 김형곤 회장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기증 도서는 ▲시의 구절을 필사하며 한국어 표현력을 높일 수 있는 <NEW 미꽃채 필사노트>(최현미 저) ▲속담, 명언, 고사성어 따라 쓰기 교재 등 총 120권으로, 결혼이주민들의 문해력 향상과 정서적 공감 능력 증진을 돕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전달식 후에는 한국어 중·고급반 학습자들이 필사노트를 활용한 실습 활동에 참여해, 한국어 자음과 모음

을 또렷이 익히고, 시를 낭독하며 문학적 감수성을 키우는 시간을 가졌다. 단순한 글씨 연습을 넘어, 학습자들은 한국어 속에 담긴 시적 정서와 문화를 직접 느끼는 뜻깊은 경험을 했다.

시원스쿨 한국어 관계자는 “이번 도서 기증이 이주민 학습자들의 언어 능력 향상은 물론, 한국 사회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문병용 센터장은 “한글날을 맞아 귀한 도서를 기증해 주신 시원스쿨에 깊이 감사드리며, 이번 기부가 결혼이주민 분들이 한국어와 문화를 배우고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적응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하남시가족센터는 앞으로도 결혼이주민을 포함한 다양한 가족 구성원들이 한국 사회에 잘 적응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다채로운 교육 및 문화프로그램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문의 031-792-2993 김영의 기자



## 하남시,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국민 90%에 1인당 10만원 지급

하남시(시장 이현재)는 현재 소득 하위 90% 국민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신청을 받고 있다.

이번 2차 지급도 7월 말 진행된 1차와 동일하게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경기지역화폐(이하 하머니)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서 받을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를 원하는 국민은 이용 중인 카드사 누리집이나 앱, 콜센터 ARS를 통해 신청하거나 카드와 연계된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면 된다. 케이뱅크·카카오뱅크·토스 등 간편결제 앱을 통한 신청도 가능하다.

카드형 하머니는 경기지역화폐 앱이나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선불카드나 하머니는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분증만 제시하면 현장에서 바로 받을 수 있다.

의무복무 중인 군 장병도 희망 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복무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소비쿠폰을 신청해 복무지에서 사용가능한 선불카드를 지급받을 수 있다. 온·오프라인 신청 모두 첫 주인 22~26일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가 적용된다. 월요일은 1·6, 화요일은 2·7, 수요일은 3·8, 목요일은 4·9, 금요일은 5·0이다. 주말에는 온라인으로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지급 대상 여부는 건강보험공단, 카드사 누리집·앱, 동 행정복지센터·은행 영업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소비쿠폰 사용기한은 11월 30일 24시까지이며, 특별시·광역시 주민은 해당 지역에서, 도 지역 주민은 주소지 시·군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사용처는 일부 업종을 제외한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업체다. 또한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장애인과 관련 시설에는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운영해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의의신청은 '국민신문고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접수와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한 오프라인 접수가 가능하다. 김영의 기자

## AI시대 부모-자녀 소통 위한 교육 마련...하남시가족센터, 가족인식개선교육 진행



하남시가족센터(센터장 문병용)는 지난 9월 18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하남시청 별관에서 자녀 양육에 관심 있는 경기도민 250명의 참여로 ‘2025년 가족 인식개선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강연은 감정코칭 전문가인

최성에 박사를 초청해 ‘AI시대, 우리 아이에게 꼭 필요한 소통과 회복탄력성 키워주기’를 주제로 진행됐다. 강연을 통해 자녀 양육 과정에서 겪는 다양한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자녀의 건강한 정서 발달과 긍정적인 가족 관계 형성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려는 자리였다.

최성에 박사는 강연에서 “AI 기술이 발전하는 시대일수록 부모와 자녀 간의 단절보다 진정성 있는 연결이 더욱 중요하다”라며 감정을 공감해 주고 지지해 주는 ‘감정코칭’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소통 방법들을 소개하며, “부모가 먼저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조절할 수 있어야 자녀와 진정한 유대관계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날 강연에 참여한

학부모들은 “자녀와의 소통에서 갈피를 못 잡고 있었는데, 오늘 강연을 통해 구체적인 방법들을 배울 수 있어 큰 도움이 되었다”라며 “아이와의 소통에 큰 도움이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교육 종료 후 실시한 만족도 조사에서는 4.78로 높게 나타났다.

문병용 센터장은 “앞으로도 부모와 자녀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과 소통의 장을 마련해 더 많은 지역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하남시가족센터(031-793-2993) 가족기능강화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영의 기자

# 다문화가정 가을별빛 가족캠프

## 하남시가족센터, 자연 속에서 체험 활동



하남시가족센터(센터장 문병용)는 지난 9월 5일과 6일 하남시 관내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1박 2일간의 가족 캠프 프로그램을 ‘가을별빛 가족캠프’를 성황리에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프는 경기도 가평군 운학삼돌이마을에서 진행됐으며, 다문화가족이 자연 속에서 함께 어울리며 가족 간 유대감을 다질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 활동과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보물찾기, 레크리에이션, 야외 체험 등이 진행됐으며, 아이들과 부모가 함께 협동하며 소통할 수 있는 시간으로 마련됐다.

‘가을별빛 가족캠프’는 다문화가족이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소통하며 건강한 가정생활을 꾸릴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기획됐다. 특히, 유사한 배

경을 가진 결혼이주 가족 간의 자연스러운 교류를 통해 정서적 지지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기회가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한 참여자는 “가족들과 끈끈한 유대감과 또래 친구들과의 친목을 도모하게 해주어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번 캠프는 전체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가 평균 4.88점(5점 만점)을 기록하는 등 매우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하남시가족센터 관계자는 “이번 가족 캠프는 다문화가족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지지하는 공동체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라며 “앞으로도 가족 중심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건강한 다문화 사회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하남시가족센터(031-792-2993) 사업3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영의 기자

# 아동 인권 보호와 돌봄 향상

## 하남시가족센터, 아이돌보미 대상 보수교육

하남시가족센터(센터장 문병용)는 소속 아이돌보미의 역량 강화를 위해 지난 6월과 9월, 총 16시간에 걸쳐 기본 및 특화 보수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아이돌봄서비스 제공자의 전문성을 높이고, 아동의 권익 보호와 안전한 돌봄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교육 과정은 ▲아이돌봄지원사업 제도 이해 ▲아동 인권 및 아동학대 예방 ▲아동 안전관리 ▲직업윤리 ▲장애아동 돌봄 이해 등 필수 주제로 구성됐다. 실무 적용도가 높은 특화 교육으로는 ▲유아기 기본생활지도 ▲신체 발달 이해 ▲

놀이의 특성과 상호작용 지원 등을 중심으로 다뤘다.

문병용 센터장은 “이번 보수교육을 통해 아이돌보미들의 전문성과 돌봄 역량이 더욱 강화되어, 아동에게 보다 안전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아동 권리 존중과 학대 예방에 대한 인식 제고, 그리고 직업윤리 확립을 통해 아이돌봄 서비스의 공공성과 신뢰성 향상에 지속적으로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하남시가족센터(031-793-2993) 아이돌봄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영의 기자



# Массовые рейды против не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ных иностранцев, управляющих нелегальными автомобилями, угрожающими безопасности граждан

<Пример 1> Сеульское управление по делам въезда и пребывания иностранцев арестовало иностранца, который открыл офис в Ансане, через рекламу в соцсетях набирал иностранных женщин, проживающих в Корее, и направлял их в караоке-заведения Сеула и провинции Кёнги в качестве помощниц или посредничал в проституции.

<Пример 2> Управление по делам иностранцев в Янчжу провело рейд в общежитии для иностранцев в Пхаджу, предотвратив кадровым агентством, после жалоб жителей на громкие крики и шум по ночам. В результате было выявлено 42 иностранца, работавших нелегально.

Министерство юстиции сообщило, что с 12 августа по 12 сентября проводилась месячная акция по выявлению нелегальных иностранцев, по итогам которой было выявлено 4 617 нарушителей, к которым применены меры вплоть до депортации.

Среди выявленных иностранцев многие занимали рабочие места, предназначенные для местных жителей, или представляли угрозу общественн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Особенно много нарушений касалось использования так называемых «дапо차» — нелегальных автомобилей, не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ных на реального владельца. Управление таким транспортом подвергает опасности и корейцев, и иностранцев, так как водители этих машин часто:

- нарушают правила дорожного движения,
- не оплачивают штрафы,

- не проходят обязательный техосмотр,
- не имеют страховки.

В случае ДТП никто не может получить компенсацию. Поэтом министерство выявило 38 нелегальных водителей без лицензии и 6 таких автомобилей.

Кроме того, в период рейдов особое внимание уделялось защите рабочих мест для корейцев. Проверялись сферы доставки, нелегальные курьерские службы (райдеры), строительство, кадровые агентства и подбор персонала через соцсети. В результате выявлено:

- 32 нелегально работающих иностранца в сфере доставки и курьерских услуг,
- 136 — в строительстве.

Также проводились проверки в клубах, развлекательных заведениях, мотелях, ориентированных на иностранцев, где велика вероятность преступлений. Там было выявлено 776 нарушителей. На производственных предприятиях — ещё 3 635.

В общей сложности наказаны 969 работодателей, нанмавших иностранцев незаконно, и 22 посредника, занимавших нелегальным трудоустройством и въездом.

Вместе с тем, как кадры из США, где корейцев задерживает миграционная служба ICE, вызвали большой общественный резонанс, так и в Корее хотелось бы, чтобы при подобных рейдах уделялось внимание защите прав не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ных иностранцев, проживающих в стране.

Иностранные SNS-журналисты провинции Кёнгидо  
경기외국인SNS기자단



**"아이들과 가족이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들어요"**

**평택시가족센터, "이웃과 함께한 추석" 공동육아나눔터 연합행사**



평택시가족센터(센터장 김성영) 공동육아나눔터4호점은 지난 9월 22일 LH배꽃마을 1단지 내 생활SOC 기관들과 추석맞이 연합행사 '풍성한 한가위, 함께하는 우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명절의 의미를 되새기고 이웃 간 교류와 세대 간 소통을 활성화

하고자 LH배꽃마을 1단지 주거행복지원센터, 평택시다함께돌봄센터 9호점, 시립 늘찬어린이집이 함께 협력해 풍성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지역사회 화합을 이끌어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떡메치기 및 인절미 만들기 체험 ▲투호·제기차기 ▲동물체험 ▲업사이클링 다육이 심기 ▲'푸른 하늘의 날' 맞이 전시 및 시화전 등이 준비되어 전통 먹거리와 놀이의 가치를 배울 뿐 아니라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축제로 큰 호응을 얻었다.

공동육아나눔터4호점을 이용하는 한 학부모는 "단지 내 생활SOC 기관들이 함께 있어 아이를 키우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이번 행사를 통해 아이와 친구들과, 지역주민들이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어 매우 뜻깊었다."고 전했다.

김성영 센터장은 "지역의 여러 기관이 힘을 모아 함께 준비한 행사라 더욱 뜻깊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LH배꽃마을 1단지 내 생활SOC 기관을 많이 이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동육아나눔터4호점은 이번 연합행사를 계기로 LH배꽃마을 1단지 내 생활SOC 기관들과의 상호 연대를 더욱 강화하고, 앞으로도 아이들과 가족이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앞장설 예정이다.

김영의 기자

## 평택시가족센터, 가족사진 촬영하며 행복과 추억 기록해요



평택시가족센터(센터장 김성영)는 지난 9월 13일 북부복지타운 다목적실에서 다문화가족 77명 총 21가족을 대상으로 인클로버재단의 '다문화가정 가족사진 촬영 사업'과 연계해 '스마일 패밀리'를 진행했다.

이번 가족사진 프로그램은 촬영에 앞서 간단한 메이크업과 헤어 스타일링 서

비스를 제공하고, 전문 사진작가의 촬영과 보정 작업을 거쳐 현장에서 즉시 인화된 사진을 액자에 담아 가족들에게 전달함으로써 다문화가족에게 특별한 경험을 제공했다.

특히, 결혼이민자의 출신국별로 대기조를 배정해 기다리는 동안 가족 간 자연스럽게 인사를 나누고 모국의 언어와 문화를 공유하며 소통할 수 있어 새로운 공감대와 친밀감을 형성하는 등 다문화가족 간 교류의 장을 마련하는 기회도 됐다.

참여자들은 "가족과 뜻깊은 추억을 남길 수 있었다."라며 "오랜만의 가족사진이라 설레고 긴장됐지만, 선생님들과 자원봉사자 덕분에 즐겁게 촬영할 수 있었

다."고 말했다. 김성영 센터장은 "사진은 단순한 기록을 넘어 가족의 사랑과 행복을 세대 간에 이어주는 소중한 매개체"라며 "이번 프로그램이 다문화가족에게 힘과 위로가 되었기를 바란다. 앞으로도 안정적인 정착과 행복한 가정 형성을 위해 다양한 지원 사업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가족사진 촬영을 끝으로 2025년도 '행복한 팀플레이 사업'이 마무리됐다.

평택시가족센터는 앞으로도 다문화가정을 비롯한 다양한 가족이 함께 어울리며 행복을 나눌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김영의 기자

## 평택 다문화가족 생활 밀착 지원

평택시가족센터(센터장 김성영)는 지난 9월 16일 서부복지타운 강의실에서 '2025년 제2차 경기도 다문화가족 서포터즈 위촉식 및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했다.

이번 위촉식에서는 태국, 필리핀, 베트남, 러시아 출신의 신규 서포터즈 4명을 추가로 위촉해 총 15명(베트남 2, 중국 2, 몽골 2, 태국 2, 필리핀 2, 러시아 1, 우즈베키스탄 1, 일본 1, 캄보디아 1, 미얀마 1 등)의 서포터즈가 활동하게 됐다.

이들은 평택시 관내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일상생활 통역 ▲관공서 및 병원 동행 지원 ▲자녀 양육 및 교육 관련 상담 ▲경제문제 ▲사회적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생활 지원 등의 서포터즈 활동을 하고 있다.

김성영 센터장은 "다양한 언어와 문화를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는 여러분의 역량이, 다문화가족이 더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영의 기자

## 평택 동아리들 재능기부 활동

평택시가족센터가 다문화가족 동아리모임 활성화 지원사업 일환으로 진행하는 에어팝 동아리와 캘리그래피 동아리가 지난 9월 18일 '재능기부 활동'을 펼쳤다.

이번 '재능기부 활동'은 다문화가족교류소통공간에서 진행된 '다가ON 나눔 POP UP' 행사와 연계하여 에어팝 동아리 회원들이 행사장 곳곳의 풍선 장식을 맡아 더욱 화사하고 풍성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현장 부스도 함께 운영해 행사에 참여한 다양한 가족들과 어린이집 원아 등에게 즉석에서 강아지, 막대풍선, 꽃, 칼 등을 만들어 주며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캘리그래피 동아리에서도 행사장을 찾은 다문화가족과 지역주민에게 원하는 문구를 현장에서 캘리그래피로 써주며 따뜻한 메시지를 전달해 의미를 더했다.

김영의 기자

## 외국인주민도 배달특급 2만원 이상 주문하면 5천원 바로 할인!

### 경기도. 공공배달 활성화 위해 '소비쿠폰 지급 기준 완화'...이주민도 공공배달앱 이용

외국인주민이 음식을 배달시켜 먹을 때 경기도 공공 배달앱인 배달특급을 이용하면 2만원 이상 주문 시 5천 원을 바로 할인받을 수 있어요.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은 10월부터 한국 정부의 '공공배달 활성화' 계획에 따라 소비쿠폰 지급을 변경한다고 밝혔어요.

많은 외국인주민들이 한국의 음식배달 앱으로 배달의 민족, 요기요 등을 알고 있겠지만 경기도에서 만든 배달특급이 더 좋아요.

다른 음식배달 앱은 음식점으로부터 높은 수수료를 받아서 음식점들이 많이 힘들어 해요. 하지만 공공배달

앱 배달특급은 매우 낮은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음식점들이 좋아하지요. 하지만 이용자가 많지 않은 것은 흠이에요.

경기도주식회사는 10월 1일부터 공공배달 소비쿠폰 지급 조건을 2만원 이상 주문 시 5천원 할인쿠폰 즉시 지급(1인당 1일 1회 지급)으로 변경한다고 밝혔어요. 기존에는 1인당 월 2만원 2회 주문 시 할인쿠폰이 지급됐어요.

한국 정부는 지난 6월 10일부터 음식점 경영부담 완화와 소비자 혜택을 위해 공공배달앱 활성화 소비쿠폰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요. 이번 기준 완화는 공공배달

활성화를 더욱 도모하기 위해 진행 중이에요.

2만원 이상 주문하면 5천원을 바로 할인 받는 배달특급은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에서 '배달특급'을 다운로드 받아 설치하면 돼요!

경기도주식회사 관계자는 "소비쿠폰 지급 기준이 또한 번 완화되면서 소비자들에게는 할인 쿠폰이 즉시 지급되어 사용이 편리해짐과 동시에 가맹점주들에게는 주문 확대의 기회가 더욱 생겨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어요.

<중국어 하단, 러시아어 34면, 영어 7면, 몽골어 하단>  
경기외국인SNS기자단

## 外国居民在“배달특급”下单满2万韩元立减5000韩元! 공공배달앱 다운로드 후 이용

外国居民如果点餐外卖时使用京畿道公共外卖APP“배달특급”，只要单笔订单满2万韩元，就可以立减5000韩元。

京畿道公共外卖APP“배달특급”表示，从10月起将根据韩国政府的“激活公共配送”计划，调整消费优惠券的发放方式。

许多外国居民可能更熟悉韩国的外卖平台，如“배달의민족”或“요기요”，但由京畿道推出的“배달특급”其实更有优势。

其他外卖平台向餐厅收取较高的手续费，给商家带来

很大负担，而公共外卖APP“배달특급”手续费非常低，更受餐厅欢迎。不过，目前用户数量还不算是它的一个小缺点。

京畿道株式会社宣布，自10月1日起，将把公共外卖消费优惠券的发放条件更改为：单笔订单满2万韩元即可立即获得5000韩元折扣优惠券（每人每天限一次）。此前的政策是：每人每月下两次满2万韩元的订单时才可获得优惠券。

韩国政府自6月10日起，为减轻餐饮商家的经营负担并增加消费者福利，已经启动公共外卖APP活化消费优惠券

项目。此次标准放宽，旨在进一步推动公共外卖的普及。

想要享受满2万韩元立减5000韩元的优惠，只需在Google Play商店或苹果App Store下载并安装“배달특급”即可!

京畿道株式会社相关负责人表示：“随着消费优惠券发放标准的再次放宽，消费者可以更方便地即时领取优惠券，同时加盟商家也将迎来更多订单机会，预计会带来积极影响。”

<한글 기사 상단>

경기외국인SNS기자단

## Гэнги аймаг олон нийтийн хүргэлтийн үйлчилгээг идэвхжүүлэхийн

### тулд 'Хэрэглээний купон олгох шалгуурыг зөөлрүүлэх' ажлыг хэрэгжүүлж байна

Гадаад иргэд хоол хүргүүлж идэхдээ Гэнги аймгийн олон нийтийн хүргэлтийн апп болох 'Түргэн хүргэлт'-ийг ашиглавал, 20,000 воноос дээш захиалга хийх үедээ 5,000 воны шууд хөнгөлөлт авах боломжтой.

Гэнги аймгийн олон нийтийн хүргэлтийн апп болох 'Түргэн хүргэлт' нь 10-р сараас БНСУ-ын Засгийн газрын 'Нийтийн хүргэлтийг идэвхжүүлэх' төлөвлөгөөний дагуу хэрэглэний купон олголтын журмыг өөрчилнө гэж мэдэгдлээ.

Олон гадаад иргэд Солонгосын хоол хүргэлтийн апп-ууд болох '배달의민족' (Хүргэлтийн үндэстэн), '요기요' (Ёгийё) зэргийг мэддэг ч, Гэнги а

ймгийн бүтээсэн 배달특급 'Түргэн хүргэлт' илүү сайн.

Бусад хоол хүргэлтийн апп-ууд рэсторануудаас өндөр шимтгэл авдаг тул хоолны газрууд ихээхэн хүнд рэлтэй байдаг.

Харин олон нийтийн хүргэлтийн апп болох 'Түргэн хүргэлт' (배달특급) нь маш бага шимтгэл авдаг учраас рэсторанууд таатай хүлээж авдаг. Гэхдээ хэрэглэгч нь тийм ч олон биш нь сул тал юм.

Гэнги Аймгийн Хувьцаат Компани нь 10-р сарын 1-нээс эхлэн олон нийтийн хүргэлтийн хэрэглэний купон олгох нөхцөлийг өөрчилж, 20,000 воноос дээш захиалга хийх

үед 5,000 воны хөнгөлөлтийн купоныг даруй олгохоор (нэг хүнд өдөрт 1 удаа) болгожээ. Өмнө нь нэг хүн сард 20,000 воны 2 удаагийн захиалга хийх үед л хөнгөлөлтийн купон олгодог байсан юм.

БНСУ-ын Засгийн газар өнгөрсөн 6-р сарын 10-наас рэсторануудын үйл ажиллагааны дарамтыг бууруулах, хэрэглэгчдэд илүү их хөнгөлөлт үзүүлэх зорилгоор олон нийтийн хүргэлтийн апп-ыг идэвхжүүлэх хэрэглэний купоны төслийг хэрэгжүүлж байгаа. Энэ удаагийн шалгуур зөөлрүүлэлт нь олон нийтийн хүргэлтийг улам идэвхжүүлэхийн тулд хэрэгжүүлж байна.

20,000 воноос дээш захиалга хийхэд 5,000 воны шууд хөнгөлөлт эдлэх 'Түргэн хүргэлт' апп-ыг Google Play Store эсвэл Apple App Store-оос '배달특급' гэж хайж татан суулгахад л болно!

Гэнги Аймгийн Хувьцаат Компаний төлөөлөгч хэлэхдээ: 'Хэрэглэний купон олгох шалгуур дахин нэг удаа зөөлөрсөнөөр хэрэглэгчид хөнгөлөлтийн купоныг даруй аван ашиглахад улам тохиромжтой болж, үүний зэрэгцээ гэрээт рэсторануудад захиалга нэмэгдэх боломжийг бүрдүүлж, эерэг нөлөө үзүүлнэ гэж найдаж байна' гэжээ. <한글 기사 상단>

경기외국인SNS기자단



지역주민 함께 '다가ON 나눔 POP-UP'

### 평택시가족센터, 다문화가족과 지역주민 잇는 장 마련



평택시가족센터(센터장 김성영) 다문화가족 교류·소통 공간 다가온에서는 9월 18일 다문화가족과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다가ON 나눔 POP-UP'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다가ON 나눔 POP-UP'은 다문화가족과 지역주민이 교류·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다가온 공간을 홍보하기 위해 기획됐다.

행사는 ▲물품 판매 ▲나만의 미니화분 심기 ▲캘리그래피 가운쓰기 ▲무료 헤어컷 서비스 ▲다문화 음식 체험 ▲풍선아트 무료 나눔 ▲무료 커피 시음회 등의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돼 큰 호응을 얻었다. 이날 행

사는 결혼이민자들이 주체적으로 부스를 운영하며 지역 사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 의미를 더했다. 또한 다문화가족과 지역주민 뿐만 아니라 인근 어린이집 원아 및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이용자들도 함께 참여해 나눔의 가치를 공유하고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는 시간을 보냈다.

행사에 참여한 결혼이민자들은 “오늘 준비한 음식을 많은 분들이 맛있게 드셔서 뿌듯했고, 모국 문화를 알릴 수 있어 기뻐다.”, “센터 풍선아트 동아리에서 배운 실력을 뽐낼 수 있어 자신감이 생기고 큰 보람을 느꼈다.” 등의 소감을 전했다.

김성영 센터장은 “이번 행사가 지역사회 속에서 다문화가족과 지역주민이 서로 어울리고 함께하는 따뜻한 장이 되었다. 앞으로도 다가온 공간을 중심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지역사회 통합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평택시가족센터는 앞으로도 다문화가족과 지역주민의 교류·소통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김영의 기자

### 평택시가족센터, 아버지 자조모임 가족과 함께 행복한 추억을 쌓다



평택시가족센터(센터장 김성영)는 지난 9월 20일 안성에 있는 아리따운 열매에서 영유아기 및 아동·청소년기 아버지를 대상으로 한 자조모임을 진행했다. 이번 모임은 아버지 자조모임이 막바지를 향해 가면서, 서로 다른 연령대의 자녀를 양육 중인 아버지들이 교류하고 경험을 나눌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자 기획됐다.

이날 프로그램은 실내 피크닉과 고구마 수확 체험 등 가족 친화형 체험 활동으로 구성됐다. 오전 시간, 참가 가족들은 모임 구성원 및 또래 아버지들과 함께 실내 피크닉을 즐기며 자연스럽게 소통하고 놀이를 통해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다. 준비해 온 도시락을 함께 나누며 친목을 도모하는 과정은 아버지들 간 유대감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

점심 식사 후에는 고구마 수확 체험이 이어졌다. 각 가족은 체험장 내 위치한 밭에서 약 3kg의 고구마를 직접 수확하는 활동에 참여했고, 아버지와 아이들은 함께 자연 속에서 흙을 만지고 수확의 기쁨을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참가 아버지들은 “아이들과 함께 단순히 수확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아이들과 함께 웃고 대화를 나누면서 가족 간의 유대감도 더욱 깊어지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라며 “이런 체험을 통해 아이들이 자연과 가까워지고, 아버지로서 함께 시간을 보내며 즐거운 추억을 쌓을 수 있어 매우 의미 있었다.”고 말했다.

김영의 기자

### 군인가족과 함께하는 가을 계절체험학습...평택시가족센터, 3군 군인가족 대상 진행



평택시가족센터(센터장 김성영)는 지난 9월 13일과 20일 관내 농장체험 학습장에서 육·해·공 군인 31가족을 대상으로 '3군 어울림 가을 계절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번 계절체험학습 프로그램은 평택

시 자치행정협치과 지방보조금 군인가족지원사업 중 하나로 육군3075부대, 해군제2함대, 공군작전사령부, 공군제7항공통신전대 3군 군인가족이 참여한 가운데 운영됐다.

첫날인 13일에는 오성면에 있는 로컬푸드길음마을에서 오이, 고구마 수확 체험, 피클·장아찌 만들기 등이 진행됐다. 20일에는 진위면 킹콩이농장에서 포도·고구마 수확, 쿠키 만들기, 천연염색체험 등 가을을 주제로 한 여름체험이 이뤄졌다.

참여자들은 “올 여름 유난히 더워 휴가도 제대로 못 보냈는데 선선해지고 있는 요즘 평택시에서 군인가족들을 위해 이러한 기회를 마련해주어 가족들과 좋은 추억을 남기고 간다.”고 말했다.

김성영 센터장은 “평택시는 육·해·공군이 모두 주둔하고 있는 군사도시로서 지역적 특색이 뚜렷하다. 시민들은 군인과 그 가족이 노고의 희생에 항상 감사하고 있으며 센터도 군인가족의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평택시 군인가족지원사업은 3군이 모두 주둔해 있는 군사도시적 특성을 반영하여 「평택시 거주 군인 및 군인가족 지원 조례」에 따라 군인가족의 문화여가생활 기회확대를 위해 매년 진행되고 있다. 평택시가족센터는 사업수행기관으로서 지난 2021년부터 비대면 홈캠핑, 계절체험학습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군인가족의 가족건강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영의 기자

정책 한눈에

# 우리나라 돌봄 인력 해결, 외국인 유학생과 함께!

## 특정활동(E-7) '요양보호사' 직종 신설



법무부는 보건복지부와 함께 국내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이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하고 요양시설에 취업할 경우 E-7(특정활동)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했다. 2024년 7월 법무부는 특정활동(E-7) 취업비자에 '요양보호사' 직종을 신설하여 외국인 유학생의 요양분야 취업을 허용하였고, 올해 1월 최초로 비자를 발급했다. 외국인 유학생이 국내에 정착해 노인 돌봄 분야에서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이 제도는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돌봄인력 부족 해소와 더불어 사회통합에도 긍정적인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1 외국인 유학생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 제도란?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 비자부터 일자리까지 지원!**  
D-2(유학) 비자와 D-10(구직) 비자 소지자까지 요양보호사 교육 대상을 확대하고, 노인요양복지시설 취업 시 E-7(특정활동) 비자로 변경을 지원하는 제도다. E-7비자로 변경하게 되면 체류기간은 1회 최대 3년까지 부여되며, 체류기간의 연장을 위해서는 고용계약의 유지가 필요하다.  
- 유학생 요양보호사 제도는 외국인 돌봄 인력의 국내 정착과 요양보호사 인력난 해소를 목표로 한다.

#### 자격 취득 주요 정보는 어디서?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및 우수 장기요양기관 정보

☎ 044-202-3521, 3514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 또는 각 시도 홈페이지에서 확인

### 2 유학생도 요양보호사로 취업할 수 있습니다!

**요양보호사는 어떤 일을 하나요?**  
식사, 목욕, 산책, 보행훈련 등 간단한 재활훈련과 같은 신체활동과 일상생활을 지원하며, 대화 상대가 되어 주는 등 심리적 지원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 어떻게 요양보호사가 될 수 있나요?

- \* 국내 대학(일반대, 전문대) 재학 중 또는 졸업 후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이 가능하다.
- 요양보호사교육기관에서 이론·실기 240시간 및 장기요양기관에서 현장실습 80시간, 총 320시간을 이수
- 한국보건인력양성시험원에서 주관하는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응시 후 합격

#### 요양보호사가 된 이후에 혜택은 무엇이 있나요?

- \* 자격 취득 후 노인요양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에 취업 시 E-7 비자 발급이 가능하다.
- \* 장기 체류 가능: 체류기간의 연장을 위해서는 고용계약의 유지 필요

### 3 E-7 비자,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외국인 유학생		노인요양복지시설	
한국어 능력(다음 중 하나)	학력 요건	임금 요건	고용 비율
- 사회통합프로그램(KIP) 3급 이상 - 사회통합프로그램(KIP) 사전평가 60점 이상 -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이상	국내 대학 전문학사 이상	최저임금 이상	국민 고용인원 대비 20% 내 하용

KIS+ory

# Tackling Korea's Care Workforce Shortage - Together with International Students!

"Caregiver" Now Recognized as an Eligible Occupation under the E-7 (Special Activity) Visa



The Ministry of Justice, in collaboration with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has established a new system that allows international students who have graduated or will graduate from Korean universities or colleges to obtain an E-7 (Special Activity) visa if they acquire a caregiver certificate and secure employment at a care facility.  
In July 2024, the Ministry of Justice added "caregiver" as a new occupational category under the E-7 visa, allowing international students to work in the elder care sector. The first visa under this new category was issued in January 2025.  
This system supports international students settling in Korea and securing stable employment in the field of elderly care. It is expected to contribute positively not only to addressing the shortage of care workers caused by Korea's transition into a super-aged society but also to promoting social integration.

### 1 What Is the Caregiver Certificate Program for International Students?

#### From Certificate to Visa and Employment—Comprehensive Support for Aspiring Caregivers!

The program expands eligibility for caregiver to include individuals holding D-2 (International student) and D-10 (Job seeker) visa status, supporting them in transitioning to E-7 (Special Activity) visa status upon securing employment at senior care facilities. The E-7 visa allows for a maximum stay of three years per issuance. To extend their authorized stay, continued employment under a valid contract is required.  
- The caregiver program for international students aims to support the settlement of foreign caregivers in Korea and to alleviate the shortage of care workers.

#### Where Can You Find Key Information on Earning a Caregiver Certificate?

Information on Caregiver Training Institutions and Leading Long-Term Care Facilities

☎ 044-202-3521, 3514

Available on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Long-Term Care Insurance Division) website or local city/provincial government websites.

### 2 International Students Are Now Eligible to Work as Caregivers!

#### What Does a Caregiver Do?

Caregivers assist with physical activities and daily living, including meals, bathing, walking, and basic rehabilitation exercises such as mobility training. They also provide emotional support by offering companionship and engaging in conversation.

#### How Can You Become a Caregiver?

- \* International students who are currently enrolled in, or have graduated from, a university or college in Korea are eligible to obtain a caregiver certificate.
- A total of 320 hours of training must be completed, including 240 hours of theoretical and practical instruction at a certified caregiver training institution, and 80 hours of on-site training at a long-term care facility.
- Pass the Care Worker Qualification Exam, administered by the Korea Health Personnel Licensing Examination Institute (KHPLEI)

#### What Benefits Can You Expect After Becoming a Certified Caregiver?

- \* Become eligible to obtain the E-7 visa status upon securing employment at a senior care facility (nursing home) after acquiring the caregiver certificate
- \* Become eligible for long-term stay (Please note that extending the authorized stay requires continued employment under a valid contract.)

### 3 What Are the Requirements for Obtaining the E-7 Visa Status?

International Students		Senior Care Facilities	
International Students	Senior Care Facilities	Wage Requirement	Employment Ratio
Korean language proficiency (any one of the following)	Educational Requirement		
- Completion of Level 3 or higher in the Social Integration Program (KIP) - Score of 61 or higher on the KIP placement test - Level 3 or higher on the Test of Proficiency in Korean (TOPIK)	Associate degree or higher from a Korean university or college	Must offer at least the legal minimum wage	Employment of foreign workers is permitted up to 20% of the total number of Korean employees.

출입국 공문서

탑티어 비자

# 출입국·외국인 정책, 이것이 궁금해요!

1345



여행, 유학, 근로 등 다양한 유형의 출입국·외국인 정책을 사례를 통해 쉽고 간편하게 알아보자.

### 국내 체류외국인을 위한

##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재한외국인의 한국 생활이 더 편안하고 안정되도록 다양한 행정 및 생활정보를 안내해 드립니다.

이용 방법: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45

상담 시간: 평일 09:00~22:00

상담 언어: 한국어 포함 20개국 언어 안내 (18:00 이후는 한국어, 영어, 중국어만 안내)

\* 한국어, 중국어, 영어, 베트남어, 태국어, 일본어, 몽골어, 인디언어, 프랑스어, 방글라데시어, 파키스탄어, 러시아어, 네덜어, 캄보디아어, 미얀마어, 독일어, 스페인어, 필리핀어, 아랍어, 스리랑카어



KIS+here

###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발급



###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발급

### #실물 외국인등록증

Q. 올해 1월부터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고 들었어요. 모바일 신분증 앱을 스마트폰에 내려받으면 즉시 발급되나요?

A.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외국인등록증을 즉시 발급받으려면 전자칩이 내장된 신형 실물 외국인등록증을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구형 실물 외국인등록증을 소지한 경우 가까운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해 스마트폰으로 신원 확인 QR 코드를 스캔한 후 본인인증을 받아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전자칩이 내장된 신형 실물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 고자 한다면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해야 합니다.

### #입국 #전자입국신고

### #여행사를 통한 가족 여행 #대리인 작성

Q. 지난달 한국으로 여행을 왔는데 전자입국신고서를 미리 작성하 다 입국 절차가 간소화해서 좋았습니다. 다음 달에는 부모님과 함께 여행사 단체 여행을 통해 한국에 방문하려고 하는데, 여행을 통해 전자입국신고서도 해도 되나요?

A. 여행사가 대신 작성하여 제출해도 됩니다. 다만, 대리인이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도 본인이 직접 작성한 것으로 간주하 기 때문에 잘못된 정보가 입력되면 불이익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대리 신청이라도 제출 전에 잘못된 정보가 없는 지 꼭 확인해 주세요.

### #탑티어 #우수인재 #F-2 비자

Q. 최근 본격 시행된 탑티어(Top-Tier) 비자에 관심이 있습니다. 탑 티어 비자를 취득하기 위한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A. 탑티어 비자는 첨단산업 분야에서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기술개발을 주도할 수석 엔지니어급 고급인재 본인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에게도 동일하게 거주(F-2) 자격을 부여하여 우수인재 유치 및 정착지원을 뒷받침하는 제도로서, 비자 발급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탑티어(Top-Tier) 요건

- (학력) 세계대학 순위 100위 이내의 석·박사 학위 취득자로서
- (경력) 세계 500대 기업에서 3년 이상 근무를 포함, 8년 이상 근무 경력 또는 세계적 연구기관에서 3년 이상 근무를 포함, 박사 후 5년 이상 연구경력을 가진 자
- (취업) 국내 기업과 고용계약을 맺고
- (소득) 연간 근로소득이 1인당 GNI 3배 이상(1억4986.5만원)인 자 ※ 연간 근로소득이 1인당 GNI 4배(1억9982만원) 이상인 경우 학력 또는 경력요건 면제

### #출입국 관련 통계 #출입국자 현황

### #체류외국인 현황

Q. 업무상 여러 기관의 출입국 관련 통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항목(출입국자 현황, 체류외국인 현황 등)임에도 법무부와 한국관광공사, 행정안전부 등 유관 기관의 통계 수치가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이유가 무엇인가요?

A. 통계작성 기관마다 작성 기준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해당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예를 들어, 국민출국자 현황에 대해 법무부는 모든 한국 국적 출국자 수를 산출하나, 한국관광공사는 국민 중 재외국민 출국자를 제외합니다. 또한, 행정안전부의 '지자체 외국인주민 현황 분류기준'에는 한국 국적 취득자가 포함되지, 법무부의 '지역별 등록외국인 현황' 산출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추석 문화로 배우는 이중언어

### 평택시가족센터, 이중언어교육 프로그램



평택시가족센터(센터장 김성영)는 이중언어교육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9월 25일 부모코칭 특강과 9월 27일 이중언어교육 대면교육을 실시했다.

이중언어 교육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진행된 부모교육 특강은 다문화가족 자녀의 이중언어환경조성을 위해 결혼이민자 학부모들이 한국의 교육 시스템과 진학 제도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마련됐으며, 중국, 베트남 출신 다문화가족 부모 12명이 교육에 참여했다.

이후 진행된 대면교육에서는 이중언어 교육생들이 결혼이민자 학부모

와 함께 중국, 베트남의 추석 명절 문화를 알아보았다. 참가자들은 전통 놀이를 즐기고, 전통 음식을 함께 만들어보며, 결혼이민자 출신국의 추석 문화가 한국의 명절 문화와 비슷하면서도 다르다는 점을 느끼면서 부모-자녀 간의 정서적 지지 및 문화적 유대감이 더욱 깊어지는 시간을 가졌다.

교육에 참여한 학부모는 “한국 교육 시스템이 많이 개편된 걸로 알고 있었는데 오늘 교육을 통해서 변경된 내용들도 들을 수 있었고 잘 정리되어 있어서 이해하기 편했다.”고 말했다.

평택시가족센터는 앞으로도 언어교육과 문화체험을 통해 다문화가족 자녀들의 이중언어 구사 능력을 꾸준히 향상하고, 부모코칭을 통해 다문화가족 부모들의 역량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김영의 기자

## 돌봄품앗이 활동 공유하고 소통

### 평택시가족센터, 공동육아나눔터 전체모임



평택시가족센터(센터장 김성영)는 지난 9월 13일 공동육아나눔터4호점에서 1, 2, 3, 4 전체 호점 모든 회원이 참석하는 ‘평택시공동육아나눔터 돌봄품앗이 2차 전체모임’을 실시했다.

이번 전체모임 첫 시간은 그동안 열심히 활동해 온 돌봄품앗이 활동 사례를 공유하는 시간을 통해 요리, 미술, 체험 등 다양한 활동사진과 주제들을 나누며 서로 격려하고 응원해 주며 품앗이 활동의 참여 의지를 새롭게 다지는 시간이 되었다.

두 번째 시간으로는 돌봄품앗이 활동에 응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진행해 엄마 아빠와 함께 다양한 모양의 과자를 활용해 ‘나만의 과자집’을 만들어보며 아이들의 창의력 향상은 물론 가족 간 협동심과 소통 능력

을 기르는 데에 도움이 되는 활동으로 구성됐다.

품앗이 그룹원들은 “다른 모임 활동지도 보여주셔서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이런 놀이가 있는지도 몰랐었는데, 감사합니다.”, “다 같이 모여서 가족 행사를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등의 긍정적인 소감을 전했다.

김성영 센터장은 “가족들에게 즐거운 추억과 화합의 기회를 제공하기 바란다. 앞으로도 품앗이 활동에 잘 참여해 주시고 아이들에게 아버지와 함께하는 추억을 많이 전해주시길 것을 당부하고, 가족센터는 다양한 가족 친화 프로그램을 운영해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평택시가족센터는 앞으로도 공동육아나눔터 사업이 더욱 활성화 되도록 상호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돌봄 공동체 사업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평택시가족센터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김영의 기자

## “메이크업으로 모두와 소통해”

### 평택시가족센터, 문화교류 프로그램 성료



평택시가족센터(센터장 김성영)는 지난 9월 24일과 26일 서부복지타운 강의실에서 지역 다문화, 비다문화 주민 32명을 대상으로 '메이크업 체험&퍼스널컬러 진단'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경기도와 평택시가 지원하는 내외국인이 참여하는 문화소통 프로그램의 하나로 30~50대 여성들이 메이크업 체험과 퍼스널컬러 진단을 매개로 서로 어울리며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강의는 메이크업의 기본 개념과 방법을 알아보고 강사가 참여자별 개별 피부

톤, 퍼스널컬러를 진단하여 개개인에 맞는 메이크업 및 스타일링 방법을 알려주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한 참여자는 “오늘 프로그램을 통해 나에게 어울리는 스타일링 방법을 알게 되어 기쁘다. 또 지역 내 다문화가족들과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었다. 프로그램이 개설되면 또 참여하고 싶다.”고 밝혔다.

김성영 센터장은 “한국 사회가 다문화 사회로 접어들며 내외국인의 교류가 증가하고 있다. 센터 이용자들도 프로그램을 계기로 서로 소통하고 교류하며 네트워크가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평택시가족센터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내·외국인의 교류·소통 증진 및 스트레스 해소라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앞으로도 지역 내 다문화·비다문화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소통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김영의 기자

## 군인가족과 함께한 특별한 하루



평택시가족센터는 지난 9월 27일 아버지사랑방에서 해군제2함대 군인 16가족을 대상으로 양계농장 체험 ‘꼬꼬댁 패밀리’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해군제2함대 군인가족행복지원서비스의 일환으로 부대와 센터의 협업으로 마련됐다. 참여 가족들은 채란체험, 계란피자·요리 만들기, 닭생태

교육 등 도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든 양계농장 체험을 진행하며 가족 간 추억을 쌓았다.

참여자들은 “평택시가족센터에서 매년 해군제2함대 군인가족을 위해 프로그램을 진행해 매년 참여하며 가족 간 친밀감을 쌓을 수 있어 매우 좋다.”고 만족감을 나타냈다.

김성영 센터장은 “우리 센터는 해군외 공군가족을 대상으로도 매년 진행하고 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군인들의 노력을 이런 프로그램으로 보답하게 되어 뿌듯하다.”고 말했다.

김영의 기자

## 캐릭터 떡 만들며 아이와 소통

평택시가족센터는 지난 9월 20일 관내 13-21년생 자녀를 둔 20가족(40명)을 대상으로 9월 1차 가족놀이터 ‘캐릭터 바람떡 만들기’를 진행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부모와 아이가 함께 친숙하고 귀여운 캐릭터를 떡으로 빚어보는 활동으로, 대한민국 명장 신경환 대표(베이커리아 놀자)의 꼼꼼하고 유쾌한 지도로 진행됐다. 아이들이 처음에는 다소 어려워했지만 직접 반죽을 만지고 모양을 찍어내는 과정에 점차 집중해 부모

와 함께 기대 이상의 결과물을 완성하며 성취감을 얻는 시간이 되었다.

참여한 가족들은 “떡은 처음 만들어봤는데 캐릭터바람떡이라 아이가 더 즐거워했다.”라며 “아이와 함께 오감이 만끽하는 신나는 수업이었다.”고 말했다.

김성영 센터장은 “아이와의 소중한 시간을 위해 함께해주신 부모님들께 감사드린다. 이런 시간이야말로 가족 간의 추억을 쌓고 서로를 이해하는 소중한 기회인 것 같다.”고 밝혔다. 김영의 기자



용인시가족센터(센터장 유지영)는 9월 26일부터 27일까지 가평 일대에서 다문화가족 40명을 대상으로 1박2일 가족캠프 '해피투게더'를 개최했다.

이번 캠프는 다문화가족의 소통과 화합, 가족 친밀감 향상을 목표로 마련되었으며, 가평 뿌피프랑스, 남이섬, 아침고요수목원, 양떼목장 등 다양한 관광지와 체험 프로그램이 포함됐다. 특히, 첫째 날

에는 '화합의 밤' 레크레이션 행사를 통해 가족들이 함께 어울리고 교류할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됐다.

또한, 캠프 전 과정에서 가정폭력예방교육 및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여행자 보험 가입 등 안전대책을 철저히 마련하여 참가자들이 안심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했다. 용인시가족센터는 이번 캠프를 통해 다문화가족이 서로의 문화를 이해

하고 가족 간 유대감을 강화하여 건강한 가정문화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지영 센터장은 "캠프에 참여한 가족들이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며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문화가족을 위한 다양한 소통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송하성 기자

## 용인시, 베트남에 도서 5000권 전달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난 24일 베트남 다낭시에 있는 '용인 스마트 디지털 도서관'에 도서 5000여 권을 전달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도서 지원은 시가 공적개발원조(ODA) 차원에서 국제 우호 도시인 베트남 다낭시에 도서관을 건립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이 시장은 지난 2월 '용인 스마트 디지털 도서관' 건립 협약을 체결하고, 도서관 착공식에 참여했다.

이날 전달한 도서는 시민들이 기증 캠페인을 통해 시 도서관에 기증한 도서와 지난 8월 시 자원봉사센터와 협업해 마련한 도서다.

이상일 시장은 "이 도서관은 다낭시 시민의 독서와 학습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될 것"이라며 "도서관 완공 후 다낭시 주민이 원활하게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송하성 기자

## 부모 공감 인성교육 운영 10월~11월 총 7회 진행

용인특례시, 부모·조부모·양육자 대상 실천형 교육, 맞춤 프로그램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부모의 자기이해와 감정 돌봄을 통해 자녀의 인성 발달을 지원하고, 가족 내 공감적 소통을 촉진하기 위한 '부모 공감 인성교육'을 10월부터 11월까지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교육은 자녀 교육에 관심 있는 부모와 조부모, 양육자를 대상으로 총 7회 진행되며, 발달 단계별 맞춤 강연과 실습을 통해 부모-자녀 관계 개선과 건

강한 가정 공동체 형성을 돕는다.

첫 번째 과정은 '감정코칭의 비밀 : 아이의 마음을 여는 부모의 힘'으로, 10월 15일과 22일 과운철 아이연구소 대표가 유·초등 저학년 자녀 부모를 대상으로 감정을 존중하는 양육법과 부모 감정 관리 방법을 안내한다.

두 번째 과정은 10월 29일 진행되는 '조부모와 부모가 함께 배우는 마음이 통하는 육아'로, 세대 간 양육 철학 차이를 이해하고 갈등을 해소하는 실천적 방법을 다룬다.

11월 5일에는 평생학습관 작은어울마당에서 김종원 작가의 특강 '부모의 말 한 줄이 아이 인생을 바꾼다'가 열린다. 이번 특강에서는 자녀의 자존감을 높이는 대화법과 부모 언어의 중요성을 전달할 예정이다. 마지막 과정은

11월 12일부터 26일까지 3차례에 걸쳐 진행되는 '기질 및 성격검사(TCI)와 미술심리치료'로, 조세화 굿코퍼레이션 심리상담센터장과 김선민 미술심리상담사가 사춘기 자녀 부모를 대상으로 검사와 상담, 아트 기반 심리치료를 진행한다.

교육 장소는 용인시 평생학습관과 작은어울마당이며,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9월 24일부터 각 강좌별로 평생학습관 홈페이지에서 선착순으로 신청할 수 있다.

용인시 관계자는 "부모의 작은 변화가 자녀의 큰 성장을 이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필요한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해 가정과 지역 사회가 함께 성장하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송하성 기자

## 용인 공공수영장 두 배 이상 증가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시민들의 건강 증진과 학생을 포함한 시민의 생존수영 교육에 도움이 될 시내 공공 수영장이 현재의 2배 이상으로 늘어난다고 17일 밝혔다.

용인시는 지난 7월 7일 개관한 기흥국민체육센터 수영장을 포함해 7곳에 41개 레인의 공공 수영장을 운영 중인데, 새롭게 8곳, 56개 레인의 공공 수영장을 건립 중이거나 추진 중이다. 신규 수영장이 114%(현재 대비 2.14 배), 레인수 기준으로는 137%나 증가하는 것이다.

용인에 공공 수영장이 대폭 늘어나는 것은 민선 8기 들어 시민의 여가 활동과 건강증진을 정책 어젠다의 앞순위에 두고 각종 생활체육시설을 확충하는 데 공을 들이온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송하성 기자

결혼이민자 정착단계별 지원 패키지사업

# 통번역사 맛보기



**대상** 용인시 **결혼이민자(F-6, F-5, 귀화자)** 한국어능력 중급이상 20명  
 ※ 한국어교육, 사회통합프로그램 등 3단계 이상 수료자  
 ※ **6회기 100% 참여 가능자 우선 접수**

**일정** 10/17(금) ~ 11/28(금) 매주 금 10시~12시 (총 6회기)  
 ※ 11/7(금) 제외

**장소** 실시간 온라인교육(ZOOM)

**내용** 통번역사 기초과정, 공공기관에서의 통번역 등

**신청방법** 아래 **2가지 모두 신청**해야 신청완료!(QR코드 스캔)  
 1. 용인시가족센터 홈페이지 가입 후 프로그램 신청  
 (**결혼이민자 이름으로 신청!**)  
 2. 구글폼(온라인) 신청

**문의** 사업1팀 070-7477-8540



용인특례시 | 가족센터 | 지구촌사회복지재단 | 용인시가족센터



**긴급**

## (주)호텔앤잡파트너스 교육생 및 직원 모집

구인내용	
모집기간	2025년 12월 31일까지
모집인원	00명
근무지	1. 교육장소 (2개 중 택 1) - 용인수지 88 호텔: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로 190번길 14 - 용인헤르메스 호텔: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전대로78번길 11-12 2. 교육 수료 후 용인시 등 전국의 호텔과 모텔, 숙박업소 취업 연계
근무내용	숙박업소의 침대정리, 청소 등 객실정비
자격요건	1. 용인시거주 결혼이민자(F-6, F-5, 귀화자) 2. 한국어로 기본적인 소통이 가능한 자
근무시간	1. 교육기간: 3일간(1일 4시간) 2. 근무시간: 호텔과 협의(주 5~6일)
급여조건	260만원~280만원
제출서류	신분증, 취업 시 자기소개서 제출
복리후생	퇴직금(1년 이상 근무 시 지급), 숙소 제공 가능
비고	-
신청방법	<b>전화접수</b> 용인시가족센터(☎ 070-7477-8540)

용인특례시 | 가족센터 | 지구촌사회복지재단 | 용인시가족센터

결혼이민자 정착단계별 지원 패키지사업

# 한국어 스피치 교육

**1) 모집 대상**

용인시 **결혼이민자(F-6, F-5, 귀화자)** 한국어능력 중급이상 20명  
 ※ 한국어교육, 사회통합프로그램 등 3단계 이상 수료자  
 ※ **4회기 100% 참여 가능자 우선 접수**

**2) 일정**

10/17(금) ~ 11/7(금) 매주 금 10시~13시 (총 4회기)

**3) 장소**

**처인구청** (처인구 금령로 50 / 김량장동)

**4) 내용**

스피치 연습, 발음교정 등

**5) 신청 방법** 아래 **2가지 모두 신청**해야 신청완료!(QR코드 스캔)

1. 용인시가족센터 홈페이지 가입 후 프로그램 신청  
 (**결혼이민자 이름으로 신청!**)  
 2. 구글폼(온라인) 신청

**6) 문의**

사업1팀 070-7477-8540



용인특례시 | 가족센터 | 지구촌사회복지재단 | 용인시가족센터

용인특례시 | 가족센터 | 지구촌사회복지재단 | 용인시가족센터

## 용인시가족센터

# 구인기업 모집



결혼이민자 채용을 지원합니다!

**대상** 결혼이민자 채용을 원하는 용인시 내 기업 및 사업체  
**기간** 2025년 12월까지 구인기업 상시 모집

**구직자 자격** 용인시 거주 결혼이민자(F-6, F-5, 귀화자)  
**신청방법** 전화 신청  
 사업1팀 070-7477-8540



**제출서류**  
 1. 구인서식  
 2. 채용 시 취업확인서  
 ※ 제출 방법 : 이메일 (주소 : yongincenter@daum.net)

**구인 게시처**  
 1. 용인시가족센터 홈페이지  
 2. 카카오톡채널  
 3.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SNS



## 센터 개관 5주년 기념식과 함께 선주민·이주민 상생·화합의 장 마련

용인시외국인복지센터, 제2회 외국인 근로자 한국어 말하기 대회...지역사회 함께

용인시외국인복지센터(센터장 김용국)는 9월 21일 센터에서 개관 5주년 기념식과 함께 ‘제2회 외국인근로자 한국어 말하기 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선주민과 이주민이 함께 어울리며 상생과 화합의 의미를 더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권선숙 용인시 여성가족과장을 비롯해 정두훈 공익법인 아시아문화연구원 대표이사, 강문옥 국제로타리클럽 3750지구 총재 등 내외빈과 지역주민, 외국인주민 등 500여명이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센터는 2020년 개소 이후 외국인 근로자, 결혼이주민, 다문화가정 청소년을 대

상으로 한국어 교육, 권익 보호, 사회적 프로그램 등을 운영해왔다. 지난 5년간 △외국인 근로자 적응 지원 △한국 사회 수용성 강화 △지역사회 통합사업을 통해 상호문화 공존의 기반을 다져왔다. 김용국 센터장은 “지난 5년은 외국인주민과 내국인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공동체를 만들어온 과정이었다”며 “앞으로도 다문화 사회의 조화와 포용을 위해 정책과 프로그램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권선숙 용인시 여성가족과장은 “센터와 외국인주민을 도와주는 모든 분들

께 감사한다”며 “말하기대회 본선에 진출한 모든 분들이 좋은 결과를 얻기를 바란다. 즐거운 축제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제2회 외국인근로자 한국어 말하기 대회’에는 치열한 예선을 거쳐 선발된 외국인 근로자 10명이 △한국 생활 경험 △문화 차이 극복 △꿈과 미래 포부를 주제로 발표해 진솔한 이야기를 전했다. 이번 대회는 단순한 언어 경연을 넘어 외국인 근로자가 한국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성장해 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무대였다. 영예의 대상은 네팔 출신 라마

프렘(LAMA PREM)에게 돌아갔다. 부대행사로 △각국 문화체험 △용인시 처인구보건소의 외국인 주민 감염병 예방 홍보 부스 △용인시 자원봉사센터의 한가위 맞이 캘리그래피 체험 △송편 빚기 체험 등이 마련돼 선주민과 이주민이 자연스럽게 교류하며 어울리는 축제의 장이 됐다. 이번 행사는 용인시와 공익법인 아시아문화연구원의 후원으로 진행됐으며, ‘함께 만들어가는 세상’이라는 메시지를 지역사회 전반에 확산시키는 계기가 됐다. 송하성 기자

## 京畿道制定禁止肤色和出身国歧视等全国首个移民人权保障三大条例



禁止根据肤色和出身国进行歧视，支援难民的居住·医疗·教育，从制度上保障未登记出生外国儿童权利的内容在中央政府和地方政府中首次法制化。京畿道表示，在9月19日举行的京畿道议会第386届全体会议上，表决通过了包含上述内容的 ①京畿道移居背景难民种族歧视禁止及人权保障条例 ②

京畿道难民人权保护和基本生活保障条例 ③京畿道出生未登记的外国儿童发掘及支援条例等3个条例。此次条例的制定是在多文化·移民社会快速变化的现实背景下，京畿道率先在全国建立了包容和人权的制度基础，具有重要意义。 ①禁止移民背景难民种族歧视及人权保障条例》(刘浩俊议员代表提议)规定，无论肤色、出身国、语言、文化背景如何，所有移民都能得到同等权利保障，并提出防止歧视、救济受害者、实态调查、宣传教育等措施。还包含设立委员会和制定基本计划的义务，确保制度的持续性。

②难民人权保护和基本生活保障条例》(刘浩俊议员代表提议)为难民申请者、包括人道主义滞留者在内的难民等提供了居住、教育、医疗、雇佣等生活全方位支援的依据。并设立难民支援政策咨询委员会，推进紧急生活费、医疗、心理咨询、就业、创业支援等多种支援项目。 ③出生未登记的外国儿童发掘及支援条例》(李仁爱议员代表提议)以国内出生后未登记的儿童为对象，将公共确认和发放认证的程序制度化。通过这一措施，将保障医疗、保健、保育、教育等基本服务，并建立与行政、教育、保育、儿童福利机构的合作体系。

京畿道计划在条例公布后迅速履行必要的后续措施。将于10月28日在国会议员会馆举行“加强移民人权保障讨论会”，共享制定条例的意义，探索在全国范围内扩散移民政策和社会团结的制度基础的方案。京畿道移民社会政策课长许永吉(音)表示：“此次条例不是单纯的制度，而是为了道民和移民都能无差别共存的社会承诺”，“将迅速履行后续措施，京畿道将引领移民社会政策。” <한글 기사 34면, 인터넷에서 경기외국인SNS기자단을 검색하세요, 더 다양하고 많은 정보를 만날 수 있어요> 경기외국인SNS기자단



**“언어와 문화를 넘어 세대 소통과 가족 유대 강화”**  
연천군가족센터, 다문화가족 대상 ‘이중언어 교육지원 가족 캠프’ 성료

연천군가족센터(센터장 조금량)는 지난 9월 13~14일 양일간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이중언어 캠프를 진행했다. 이번 캠프에는 만 12세 미만 자녀를 둔 다문화가족이 참여했으며, 부모와 자녀는 물론 결혼이민자의 친정어머니와 시어머니까지 3대가 함께 어우러져 세대를 아우르는 의미 있는 가족축제가 펼쳐졌다.

첫날 프로그램은 한탄강댐 물문화관에서 진행됐다. 가족 간 유대감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레크리에이션 활동을 통해 세대 간 장벽을 허물고, 웃음과 응원이 가득한 소통의 장이 마련됐다.

이어 연천 재인폭포 오토캠핑장에서는 ▲결혼이민자가 모국의 전통 음식을

선보이는 나라별 음식 경연대회 ▲가족의 행복한 순간을 사진에 담아 발표하는 가족사진 경연대회가 이어져 참가자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이번 캠프는 단순한 개별 가족 참여를 넘어, 모든 가족이 함께 어우러지는 소통과 교류의 장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풍성한 상품과 함께 진행된 가족 바비큐 파티는 참가자 모두에게 즐겁고 따뜻한 추억을 선사했다.

한 결혼이민자는 “시어머니와 친정어머니가 함께 캠프에 참여해 더욱 특별한 시간이 되었다. 우리 가족뿐 아니라 다른 가족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리며 큰 힘을 얻을 수 있었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조금량 센터장은 “이번 이중언어 캠프는 다문화가족이 언어와 문화를 넘어, 세대를 아우르며 서로를 이해하고 소통하는 뜻깊은 자리였다. 앞으로도 가족 간 유대감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속에서 다문화가족이 당당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연천군가족센터는 앞으로도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과 행복한 가정생활을 지원하며, 세대와 문화를 잇는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연천군가족센터 가족지원 3팀 (031-835-0093)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지은 기자

##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유치총력



연천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유치 추진위원회’ 발족식을 열고, 서명운동에 나서는 등 공모 선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연천군은 지난 25일 본관 3층 대회 의실에서 김덕현 연천군수와 김미경 의장과 군의원, 이윤규 연천군농업인 단체협회장, 임달수 연천군이자협의 회장, 정남훈 대한노인회 연천군지회장, 주민 등 4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유치 추진위원회’ 발족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추진위원회는 결의문을 통해 △군사 규제와 수도권 규제로 인한 피해 극복 및 주민 삶의 질 향상 △청산면 시범사업 성과의 군 전역 확산 △행정·의회·지역사회의 협력을 다짐했다. 결의문 낭독 직후 참석자 전원이 자리에서 일어나 구호를 외치며 유치 의지를 다졌다.

연천군은 발족식을 계기로 현수막 게시, 국회 기자회견 등 다각적 홍보 활동을 이어가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유치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이날 발족식 직후 김덕현 군수와 김미경 의장, 추진위원회 위원들은 나란히 서명운동에 참여해 주민 참여 열기를 이어갔다.

김덕현 연천군수는 “연천군민들은 철책을 베개 삼으며 삶을 살아야 했으며, 군사 규제 속에서 오랜 세월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을 감내해 왔다”며 “농어촌 기본소득은 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니라 남아 있는 군민 모두가 ‘계속 살아갈 수 있다’는 용기를 얻고, 연천의 미래를 바꾸는 전환점이 될 것이다. 군수인 제가 먼저 앞장서서 군민들과 함께 뜻을 모아 반드시 이번 공모에서 연천군이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2022년부터 경기도 청산면(농촌기본소득)에서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업이다.

이지은 기자

## 연천군, 주민 생활과 밀접한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정보를 누구나 자유롭게 활용 가능토록



한 공공데이터를 개방한다고 밝혔다.

공공데이터는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정보를 누구나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한 자료를 말한다.

연천군은 인구, 문화, 교통, 복지 등 생활 밀착형 데이터를 꾸준히 개방해 다문화가족을 비롯해 연천군민 누구나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현재 개방된 주요 데이터는 △인구 현황 △마을회관·경로당·문화재 위치 △관광지·문화시설 정보 등이 있으며, 주민 생활과 창업, 연구, 서비스 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유용하게 쓰이고 있다. 연천군 관계자는 “공공데이터는 단순한 행정 정보가 아니라 군민의 삶을 개선하고 지역 발전을 이끄는 자원”이라며 “앞으로도 생활 밀착형 데이터를 지속 발굴·개방해 군민이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연천군 공공데이터는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에서 연천군을 검색하거나 군청 누리집 내 공공데이터 목록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지은 기자

연천군은 주민 생활과 밀접한 다양



## 도서 '무인 대출기' 설치해

과천시, 지정타 2곳에 24시간 정식 운영



과천시는 시민들이 도서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책을 편리하게 대출할 수 있도록 365일 24시간 운영되는 무인 대출기를 설치하고, 22일부터 정식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무인 대출기는 과천제이드하이 아파트와 과천그랑레브테시앙 아파트 단지 내 커뮤니티센터 부근에 설치됐다. 이번 사업으로 시민들은 도서관 운영시간과 관계없이 언제든지 책을 대출한 책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정보과학도서관 도서를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동네 작은도서관 운영시간에 맞춰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지만, 무인 대출기 도입으로 시민들의 이용편의가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자녀 교육에 관심이 많은 다문화가족도 적극적으로 이용하면 좋겠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무인 대출기는 시민들이 일상에서 책을 더 가까이 만날 수 있도록 하는 생활 독서 기반”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독서 편의 서비스를 확대해 시민 모두가 풍요로운 독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과천시는 이번 설치를 시작으로 생활권 가까이에서 책을 쉽게 접할 수 있는 독서 편의 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송하성 기자

## '과천 사는 이야기 마당' 개최

과천시, 원문동 시작으로 11월까지 순회



과천시는 오는 11월 6일까지 각 동을 순회하며 '과천 사는 이야기 마당'을 총 8회 개최한다. 하반기 첫 행사는 원문동 래미안수르 아파트 단지 내에서 주민들과 함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과천 사는 이야기 마당'은 과천시가 2014년부터 지속적으로 운영해 온 현장 소통형 시민 간담회로, 시장과 시민이 직접 만나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소통의 장이다. 일상 속 건의부터 시정 주요 현안까지 주제에 제

한 없이 논의되며, 현장에서 제기된 의견과 건의 사항은 시 홈페이지를 통해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된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시민들은 과천지구 막계동 특별 계획구역 내 종합병원 건립에 대한 기대와 관심을 표현했으며, 과천~봉담 간 지방도 309호선 도로구간의 소음 문제 해소를 위한 방음터널 설치를 조속히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과천시는 지금, 미래 발전의 중요한 길목에 서 있다”라며, “시민 한 분 한 분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고자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도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소통과 참여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송하성 기자

**2025년 11월 1일(토) 09:00~17:00**  
화성시 라온캠프닉

문의 02.503.0070 다문화가족지원팀

<b>모집기간</b> 9월 26일(금) 13:00~ 10월 10일(금) 18:00	<b>모집대상</b> 과천시가족센터 등록 다문화가족 38명 (10가족내외) <small>1순위 2025년 센터 등록 신규 다문화가족 2순위 2024년 다문화가족 캠프닉 미참여 가족 3순위 과천시 거주 다문화가족</small> * 2025년 온가족보듬사업 캠프닉 중복 참여가 제한됨.	<b>프로그램 내용</b> 우리집 캠프닉 음식만들기, 다문화가족놀이대회, 가족 캐리커처 제공 등
<b>접수방법</b> 센터 홈페이지 신청 (참여 가족 모두 신청)	<b>참여자 발표</b> 10월 13일(월) 개별 문자 안내	<b>비용</b> 무료 대형버스, 텐트, 비배구 숯 및 비품, 여행자보험, 가족음식 재료 일부지원 등 <small>* 점심 요리 재료 개별 준비</small>

2025년 다문화가족 초기 정착지원

<b>모집 기간</b> 2025. 9. 22.(월) ~ 모집 완료시 까지	<b>신청 방법</b> QR 신청 (선착순)
<b>모집 대상 및 인원</b> 다문화가족 성인, 회기별 15명	<b>문의</b> 02.503.0070 (다문화가족 담당자)

<b>1회기</b> 10월 17일(금) 13:00~14:30 2층 누리마루	화폐와 금융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국 물가 제대로 알기</li> <li>은행 이용 방법과 금융사기예방</li> </ul>
<b>2회기</b> 10월 24(금) 10:30~12:00 2층 누리마루	재무설계와 금융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재무설계의 필요성과 실천방법</li> <li>자녀 금융교육 지도법</li> </ul>

## 초등 신입생에 입학준비금 지원

### 신상진 시장 “학생들의 첫 출발 응원해요”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내년도부터 초등학교 1학년 신입생에게 입학준비금 1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이를 위해 성남시는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관한 협의를 7월 21일 완료하고, 제30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 ‘성남시 초등학교 등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를 제출했다.

성남시는 내년도 초등학교 신입생 수를 6303명으로 예상해 해당 사업비

도 확보할 방침이다. 입학준비금 10만원은 지역화폐(성남사랑상품권)로 지급한다.

지급 대상은 입학 기준일 현재 성남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고, 초등학교나 교육청 등록 대안교육기관에 1학년으로 입학하는 신입생이다. 성남시는 출산 장려, 지역경제 활성화, 교육 분야의 공공적 역할 강화 등 다각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학생들의 첫 출발을 응원하고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입학준비금 지급을 추진하고자 한다”면서 “준비물 마련 등으로 금전적 부담이 커지는 입학 시기에 이번 실질적 지원을 통해 학생들이 더욱 안정적인 환경에서 첫 학교 생활을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031-729-3042 송하성 기자

##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성남”

### 성남시, 만족도 조사서 평균 ‘90.8점’ 나와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임신·출산 지원 사업의 시민 종합 만족도가 ‘매우 우수’ 수준인 평균 90.8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가족 등 시민들이 성남시에서 참여할 수 있는 임신출산 관련 프로그램은 많다.

먼저 한방 난임 시술비 지원사업은 성남시한의사회와 2014년부터 협업 추진해 매년 중원구보건소로 지원 신청하는 15명에게 3개월간 최대 180만원 상당의 한약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난임 진단을 받은 성남시 거주 남성 또는 여성이다. 최대 지원금 내에서 부부가 동시에 한약을 지원받아도 된다.

임산부 출산 교실은 맘 편한 태담 태교, 플라워 감성 태교, 신생아 리듬 마사지, 신생아 돌봄 실전, 아기용품 만들기, 산전·산후 정서 관리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실전 육아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3개 구 보건소별로 한 기수당 10~40명을 모집하며, 매년 3~10월에

한 달간 4회 과정으로 운영한다. 성남시 거주 임신부와 배우자가 참여 대상이며, 별도 참가비는 없다.

서비스 만족도 점수가 가장 높은 ‘토요 임산부의 날’은 직장인 임산부 등을 위해 수정·중원·분당 3곳 보건소에서 매월 셋째 주 토요일에 오전 9시부터 정오까지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다.

간, 신장, 당뇨, 빈혈 등 기초 혈액검사, 소변검사를 하고, 엽산제·철분제 지원 등 산전 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주민등록 주소지가 성남시인 임산부와 예비·신혼부부면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한편 성남시는 학술연구·리서치 기관인 위드리서치에 의뢰해 ‘토요 임산부의 날 운영’ 등 3개의 임신·출산 지원사업 참여자 11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해 이 같은 결과를 얻었다.

성남시 관계자는 “임신과 출산을 준비하는 과정에 시민 중심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송하성 기자



사회복지법인 행복복지재단

10월 상담대기자 집단상담

## 마음챙김 힐링클래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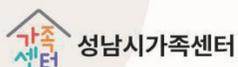
마음의 색을 발견하는 치유의 시간

### 신청안내

신청대상	2025년 센터 상담실 이용자 및 대기자 10명	
신청기간	9월 25일(목) 10:00 ~ 10월 13일(월) 10:00 ※참여 확정 시, 10월 13일(월) 개별 문자안내	
신청방법	[온라인신청] 성남시가족센터 홈페이지 seongnam.familynet.or.kr (※회원가입 필수)	
문의	가족성장팀 031-756-9327(내선1번)	

### 프로그램

회기	진행 내용	일정 및 장소
1	MBTI 심리검사	▶ 일정 : 10.16(목) ~ 10.23(목) ▶ 장소 : 비대면(온라인검사)
2	컬러테라피 집단상담 컬러향수 만들기	▶ 컬러심리분석 & 컬러향수 만들기 ▶ 일정 : 10.25(토) 10:00 ~ 12:30 ▶ 장소 : 성남시가족센터 교육장 3



사회복지법인 행복복지재단

성남시가족센터

##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교실 이용 안내

우리 아이 언어발달, 지금 어디쯤 왔을까요?

다문화가족 자녀의 언어발달상태를 평가하고, 아동에게 적절한 언어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 사업대상 및 기간

- 모집대상 만 12세 이하의 영유아 ~ 초등학교(다문화가족자녀, 외국인자녀, 북한이탈주민)
- 모집기간 2025년 1월~12월 (상시모집)  
\* 중복지원 불가 대상  
- 방문서비스 중 자녀대상 한국어, 자녀생활서비스를 이용중인 경우  
- 배우처(언어치료서비스)를 이용중인 경우

### ☑ 서비스내용

- 언어발달 평가 - 평가 회수 : 아동 1인당 2~4회(30분~1시간/회)  
- 평가방법 : 전반적 언어발달검사, 어휘력, 구문이해력, 언어문제해결력, 발음
- 언어발달 교육 - 교육시간 : 개별 또는 모둠 수업으로 주2회(40분/회)  
언어발달 수준에 따라 6개월 단위로 정해지며 최대 3회 연장 가능
- 평가 및 교육 장소 - 성남시가족센터 언어발달교실  
- 다문화가족 자녀가 있는 성남시 유아교육 기관

### ☑ 신청방법

- 다문화가족 개별 신청 및 유아교육 기관 신청
- 전화접수 후 센터 내 '언어발달교실'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 우선선정순위 : 중병서류 지참 (수급자, 한부모, 조손, 맞벌이, 다자녀, 장애질환가정, 차상위계층, 도서벽지거주)

### ☑ 문의 031-757-9327 박초이, 조희은 언어발달지도사





## 맞춤형 정착 지원, 자신감 가족에 키워

### 화성시가족센터, 결혼이민자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화성시가족센터(센터장 박미경)는 지난 8월 28일부터 9월 25일까지 진행된 결혼이민자 정착 단계별 지원패키지 ‘행복+ 든든 Life(2)’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한국 입국 3년 이상 된 결혼이민자 12명이 참여했으며, ▲미래 설계(4회기) ▲이미지 메이킹 특강(1회기) ▲부모교육(3회기) ▲엄마표 캐릭터 도시락 만들기 특강(1회기) 등 총 9회기 과정으로 운영됐다.

참여자들은 미래 설계를 통해 삶의 목표를 구체적으로 그려보고, 부모교육을 통해 자녀 양육과 가족관계에

대한 이해를 넓혔다. 또한 이미지 메이킹 특강은 결혼이민자 스스로 자신감을 높이고 긍정적인 자아상을 형성하도록 돕는 데 중점을 두었다. 마지막 회기인 엄마표 캐릭터 도시락 만들기 활동은 자녀의 자존감 향상과 가족 간 유대 강화에 도움이 됐다.

한 참여자는 “앞으로의 목표를 세우는 데 큰 도움이 되었고, 아이와 특별한 선물을 할 수 있어 소중한 추억으로 기억될 것 같다.”라며 “무엇보다 다양한 나라의 친구들과 교류하며 용기를 얻었다.”고 말했다.

김영의 기자

## 화성형아이키움터, '가족만세점' 가족 대상 체험형 복합공간 개관



화성시가족센터(센터장 박미경)는 오는 10월 15일 가족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체험형 복합 공간

‘화성형아이키움터 가족만세점’(화성시 향남읍 평2길 16. 가족만세센터 2층)을 공식 개관한다.

가족만세점은 공간 이용, 가족 프로그램, 가족품앗이, 장난감 대여 서비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들과 부모가 함께 소통하며 즐길 수 있는 공간이다. 특히, 입구에는 AI 놀이터가 설치되어 최신 기술을 접목한 놀이 체험을 제공, 아이들에게 새로운 경험과 재미를 선사한다.

가족만세점은 화성시에 거주하며 12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모든 가정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운영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박미경 센터장은 “가족만세점 개관을 통해 화성시 서부권의 가족 친화 문화 확산과 안정적인 육아 지원 서비스 강화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가족만세점을 중심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031-366-0013 김영의 기자

특별한 시민, 빛나는 도시  
**화성특례시**  
HWASEONG SPECIAL CITY

## 화성형아이키움터 가족만세점

가족의 행복을 나누는 새로운 시작,  
**가족만세점 10월 15일 GRAND OPEN!**  
많은 관심과 방문 부탁드립니다 !!

### 공간 운영

**이용시간 : 평 일(월~금)**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보호자 동반시 이용가능**

### 프로그램

**<FUN FUN 과학 탐험대>**  
10.27~11.24, 6~7세 6가족  
매주 월 16:30~17:30

**<푸드아트 동화요리>**  
10.21~11.25, 5세 5가족  
매주 화 16:00~17:00

### 장난감대여

**이용시간 : 평 일(월~금)**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연회비 2만원(가입기간 1년)**  
1회 2점, 14일 대여가능  
센터 사정으로 11월 이후 운영 예정

### 가족품앗이

**가족품앗이란?**  
같은 지역, 이웃 간 육아정보를 나누고 서로의 장점을 살려 학습, 체험, 놀이 등을 함께하는 공동체 활동.

대상: 그룹당 2~5가정 / 월 2회 이상 활동, 활동일지제출

위치 : 화성시 향남읍 평2길 16 가족만세센터 2층

화성시가족센터

화성형아이키움터

**가족만세점**  
031.366.0013

## 다문화 자녀 '쇼콜라티에' 체험 화성시가족센터, '직업인 만남, 꿈의 작업실'



보이는 케이크'를 직접 만드는 이색 체험이 진행돼 각자의 창의성을 담은 달콤한 작품을 완성하며 현장은 활기로 가득했다.

참여 학생들은 “짜장면 케이크를 만드는 과정이 신기하고 재미있었다”라며 “요리사가 꿈인데, 쇼콜라티에도 멋진 직업인 것 같다”고 말했다.

화성시가족센터(센터장 박미경)는 지난 9월 13일 초·중학교에 재학 중인 다문화가족 자녀 20명을 대상으로 ‘직업인과의 만남, 꿈의 작업실-쇼콜라티에 편’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직업인과의 만남, 꿈의 작업실’은 다양한 직업군 종사자와의 만남을 통해 직업 세계에 대한 이해를 돕고, 체험을 통해 진로를 탐색할 수 있도록 기획된 진로체험 프로그램이다.

이번 회차에서는 ‘쇼콜라티에’라는 직업을 주제로 진행됐다.

이날 참여한 학생들은 초콜릿을 활용한 디저트 제작 과정을 체험하며, 실제 쇼콜라티에의 역할과 직업적 특성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짜장면처럼

박미경 센터장은 “아이들이 체험을 통해 자신의 꿈을 구체화해 가는 모습이 매우 뜻깊었다”라며, “앞으로도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다양한 진로 경험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화성시가족센터 진로설계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센터는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다양한 직업군을 접하고 자신의 진로를 능동적으로 탐색할 수 있도록 돕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화성시가족센터(070-8831-9102)로 하면 된다.

김영의 기자

## 외국인주민 권익 보장, 경기도가 더 크게 앞서간다!

### 경기도, 출신국에 따른 차별 금지 등 전국 최초 이주민 인권보장 3대 조례 제정



피부색과 출신국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난민의 주거·의료·교육을 지원하며,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의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통틀어 처음으로 법제화됐어요.

경기도는 지난 9월 19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6회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①경기도 이주배경 도민 인종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②경기도 난민 인권 보호와 기본생활 보장 조례 ③경기도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 등 3개 조례가 의결됐다고 밝혔어요. 이번 조례 제정은 다문화·이민사회로 빠르게 변화하는 현실 속에서 경기도가 포용과 인권의 기반을 제도적으로 확립한 전국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커요.

'이주배경 도민 인종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유호준 의원 대표발의)는 피부색, 출신국, 언어, 문화적 배경과 무관하게 모든 이주민이 동등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차별 예방, 피해 구제, 실태조사, 홍보·교육을 규정했어요. 위원회 설치와 기본계획 수립 의무를 담아 제도의 지속성을 확보했어요.

'난민 인권 보호와 기본생활 보장 조례'(유호준 의원 대표발의)는 난민 신청자, 인도적 체류자를 포함한 난민에게 주거, 교육, 의료, 고용 등 생활 전반을 지원할 근거를 마련했어요. 난민 지원정책자문위원회를 두고 긴급 생계비, 의료·심리 상담, 취업·창업 지원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어요.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이인에 의원 대표발의)는 국내 출생 후 등록되지 않은 아동을 대상으로 공적 확인과 확인증을 발급하는 절차를 제도화했어요. 이를 통해 의료, 보건, 보육, 교육 등 기본 서비스를 보장하고, 행정·교육·보육·아동복지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마련할 방침이에요.

경기도는 조례 공포 이후 필요한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이행할 계획이에요. 오는 10월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주민 인권보장 강화 토론회'를 열어 조례 제정의 의미를 공유하고, 이주민정책과 사회통합을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을 전국적으로 확산해 나갈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에요.

허영길 경기도 이민사회정책과장은 "이번 조례들은 단순한 제도가 아니라 도민과 이주민 모두가 차별 없이 공존하기 위한 사회적 약속"이라며 "후속 조치를 신속히 이행해 경기도가 이민사회 정책을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중국어 29면, 베트남어 9면, 러시아어 13면, 몽골어 13면〉

경기외국인SNS기자단

## Иностранные жители тоже получают скидку 5 000 вон при заказе от 20 000 вон через Baedal Teukgeup! 경기도, 공공배달 활성화 지원



Иностранные жители, заказывая еду через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е приложение доставки «배달특급» (Baedal Teukgeup) в провинции Кёнгидо, могут получить скидку 5 000 вон при заказе от 20 000 вон.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е приложение доставки «배달특급» в Кёнгидо объявило, что с октября изменяются условия выдачи потребительских купонов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плано

м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по «активизации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сервисов доставки».

Многие иностранные жители знают такие популярные приложения доставки, как Vaemin (배달의민족) и Yogiyo (요기요), но приложение «배달특급», созданное провинцией Кёнгидо, имеет свои преимущества.

Другие приложения доставки берут с ресторанов высокие комиссии, из-за чего владельцам заведений приходится нелегко. Н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е приложение «배달특급» работает с очень низкими комиссиями, что выгодно для ресторанов. Недостаток лишь в том,

что пользователей пока не так много.

Компания Gyeonggi Province Co., Ltd. сообщила, что с 1 октября условия выдачи потребительских купонов изменяются: теперь при заказе от 20 000 вон сразу предоставляется скидочный купон на 5 000 вон (один раз в день на человека). Ранее купоны выдавались при двух заказах по 20 000 вон в месяц.

Правительство Кореи с 10 июня продвигает проект по предоставлению потребительских купонов для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приложений доставки, чтобы снизить нагрузку на рестораны и дать больше

выгод потребителям. Текущие изменения направлены на ещё более активное использование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сервиса.

Чтобы получить скидку 5 000 вон при заказе от 20 000 вон, достаточно скачать приложение «배달특급» в Google Play или Apple App Store и установить его.

Представитель Gyeonggi Province Co., Ltd. отметил: «Благодаря ещё большему смягчению условий выдачи купонов потребители смогут пользоваться скидками удобнее, а владельцы ресторанов получают больше заказов, что окажет положительное влияние на их бизнес».〈한글 기사 23면〉



화성시청 1577-4200 화성시가족센터 031-267-8787 화성시의외국인복지센터 031-8059-1261 아시아다문화소통센터 031-267-1526 다모임한사랑복지 031-357-0888 까리따사이주민화성센터 031-354-5222 화성고용복지플러스센터 031-290-0800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031-492-9347 범죄신고 112 간첩신고 111 화재, 응급환자발생 및 병원정보 119 보건복지콜센터 129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이주여성 긴급지원센터 1577-1366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1397 전기고장신고 123 수도고장신고 121 가스사고신고 1544-4500 법률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전국전화번호안내 114 세계시간안내 116 일기예보안내 131



## "이주민이 직접 전하는 생활과 권익 이야기" 화성시와 화성시외국인복지센터, '이주노동자 소통 간담회' 개최

화성특례시와 화성시외국인복지센터(센터장 손병희)는 지난 9월 16일 센터 3층 대강당에서 '이주노동자 소통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화성시 관내 이주노동자의 애로사항과 사업장 내의 불평등, 이주민의 생활 경험과 개선점을 직접 듣고, 지역사회와 함께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 가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조승문 화성특례시 제2부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국가별 공동체 리더와 다양한 나라 출신 이주노동자들이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한국에서의 근로 및 생활 경험을 공유하며, 어려움과 개선되어야 할 점을 한국어로 직접 전달했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서는 서로의 경험을 나누는 과정에서 소통의 중요성을 체감하고, 더 나은 화성과 지역사회를 만들

기 위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졌다.

손병희 센터장은 "센터는 이주노동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교류의 장을 마련하고, 화성특례시와 협력해 소통과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이주민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과 소통의 장 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김영의 기자



## "이주민의 삶과 이야기" 영상에 담아내다

### 화성시외국인복지센터, '2025 화성시 이주민 영화제' 개최



화성시외국인복지센터는 지난 9월 14일 센터 3층 대강당에서 '2025 화성시 이주민 영화제'를 개최했다.

이번 영화제는 화성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외국인주민.분과와 함께 마련했으며, 영화를 통해 이주민의 삶과 이야기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상영작은 센터가 기획·운영하는 영상 크리에이터들의 작품 Vlog(10분)를 비롯해 역사적 아픔을 담은 다큐멘터리 <사할린에서 온 편지>(16분), 최근 개봉작으로 주목받은 드라마 <바다호랑이>(106분) 등 총 3편이었다. 특히 크리에이터들이 제작한 Vlog는 이주민의 일상과 시선을 담아내어 관람객들의 공감을 끌어냈다.

이번 영화제는 단순한 상영회가 아니라 영화를 매개로 서로의 목소리를 나누고, 지역사회가 이주민의 삶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되었다.

참석한 관람객들은 작품을 통해 공감과 울림을 나누며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2025 화성시 이주민 영화제'는 총 2회에 걸쳐 진행됐다. 1회차는 지난 8월 31일 화성시동부출장소 3층 대강당에서 열렸으며, 2회차는 9월 14일 화성시외국인복지센터에서 이어졌다.

손병희 센터장은 "이번 영화제를 통해 이주민의 이야기를 지역사회와 함께 나눌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문화와 경험을 공유하며 내·외국인이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지역사회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김영의 기자

## 베트남 음식 '반미' 나눔으로 교류의 장

화성시외국인복지센터(센터장 손병희)는 지난 9월 7일 센터 3층 대강당에서 베트남 공동체와 함께하는 자국 문화교류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베트남 전통음식인 달걀 반미를 나누며 문화적 교류와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

베트남 공동체는 직접 준비한 반미를 외국인 주민과 방문객들에게 나누었다. 행사장에는 베트남 국기와 전통 의상, 물품 등이 전시되어 다양한 국가의 외국인 주민들이 베트남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었다. 특히 이날 행사는 한국어 교육 접수일과 맞물려 많은 외국인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면서 현장의 분위기를 더욱 풍성하게 했다.

이번 교류 행사는 베트남 공동체가 직접 준비하고 진행한 활동으로, 구성원 간의 친목을 다지고 화성시외국인복지센터를 이용하는 다른 국가의 외국인 주민들에게 베트남의 전통문화를 알리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다. 또한,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고 서로의 문화를 공유하고 교류하는 만남의 장이 되었다.

김영의 기자

## 화성외복, 방글라데시 공동체와 문화체험

화성시외국인복지센터는 지난 9월 7일 용인 캐리비안 베이에서 방글라데시 공동체와 함께하는 문화체험 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에는 방글라데시 공동체 45명을 비롯해 담당자와 봉사자를 포함한 총 47명이 참여했다.

참여자들은 단체사진 촬영 후 자유롭게 워터파크 시설을 즐기며 여가를 보냈고, 가족 단위로 참석한 외국인 주민들은 아이들과 함께 물놀이를 체험하며 즐거운 한때를 보냈다. 이번 활동은 고된 노동으로 지친 외국인 주민들에게 스트레스 해소와 활력을 제공했으며, 신규 회원들의 참여로 공동체 내 소통과 단합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센터는 이번 문화체험을 통해 방글라데시 공동체 구성원들이 한국의 여가문화를 경험하고, 나아가 지역사회 적응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영의 기자

## "1인가구의 삶을 응원하고 공감과 소통하는 축제 열렸다"

### 화성시가족센터, 제3회 1인가구 페스타 성황...경기도 최초 행사 3회째 운영

경기도 최초로 1인가구 페스타를 시작한 화성시가족센터(센터장 박미경)가 올해도 1인가구의 행복을 위한 축제를 개최했다.

1인가구의 삶을 응원하고 소통과 공감을 위한 축제의 장인 제3회 1인가구 페스타 'I am 1인가구'가 지난 9월 20일 화성시가족센터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화성시 거주 1인가구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다양한 연령대의 1인가구 참여자들이 현장을 찾아 활기찬 분위기를 자아냈다.

이번 페스타는 총 4개의 테마(ZONE)으로 구성된 체험부스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정보 제공과 체험 중심의

프로그램을 통해 참여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운영 프로그램은 ▲1인가구 사업 안내 ▲돌봄 ZONE(감정오일테라피, 한의 체질 알기, 간단 호신술 등) ▲힐링 ZONE(지문성격검사, AI 피부진단, 드림백 체험 등) ▲ESG ZONE(천연세제 만들기, 아나바다, 나의 에너지로 솜사탕 만들기 등) ▲게임 ZONE(레트로 게임, 시간을 잡아라) 등이다. 체험부스 이 외에도 다양한 참여형 공연이 함께 진행되어 현장을 찾은 1인가구에게 즐거움과 의미를 동시에 전달했다.

박미경 센터장은 "이번 페스타를 통해 생애주기 중 누구나 한 번쯤은 경험하게 될 1인가구의 건강한 독립

생활을 위해 서로 이해하고 공감하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화성시가족센터는 1인가구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화성시가족센터는 앞으로도 1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한 독립생활을 위해 맞춤형 프로그램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관련 문의 사항은 화성시가족센터 친화사업팀(070-8831-8621, 070-8831-8624)으로 문의하면 된다.

〈인터넷에서 파파야스토리를 검색하세요, 더 다양하고 많은 정보를 만날 수 있어요〉

김영의 기자



## 말 통하고, 맘 통하는 '가을나들이'

### 화성시가족센터, 한국어교육 국내적응 프로그램 진행

화성시가족센터(센터장 박미경)는 지난 9월 22일 한국어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결혼이민자들과 국내적응 프로그램으로 '말도 통하고 맘도 통하는 우리들의 가을나들이'를 진행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한국어교육(기초~중급) 수강생 70여 명이 참여했으며, 화성시 향남 상두리마을에서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전통 찜빵 만들기 ▲자연 염색 체험 ▲마을 투어 등 다채로운 활동에 참여하며 한국 전통문화를 체험하고 그동안 배운 한국어를 생활 속에서 사용해 보는 기회를 가졌다.

그동안 온라인으로 수업에 참여하던 수강생들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직접 만나 교류하며 유대감도 깊어지

고 한국어 학습에 자신감을 갖는 뜻깊은 자리가 됐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한 결혼이민자는 "친구들과 함께 요리도 하고, 한국어로 대화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어 행복한 추억이 되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참가자는 "교실에서 배우는 것과 달리 실제로 체험하며 한국어를 쓰니 더 쉽게 기억되고 자신감이 생겼다"고 밝혔다.

화성시가족센터 관계자는 "결혼이민자들이 교실을 넘어 지역사회 속에서 한국문화를 이해하고, 서로 교류하며 관계를 확장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라며 "앞으로도 결혼이민자의 안정적 정착을 돕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영의 기자



## 다문화 자녀 자신감과 미래 화성시가족센터, '다재다능'

화성시가족센터(센터장 박미경)는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사회적 역량을 키우고, 다양성을 존중받으며 주체적으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다재다능' 프로그램을 지난 7월 12일부터 격주 토요일 오전 10시에 운영하고 있다.

'다재다능'은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자신의 강점과 정체성을 발견하고, 또래와 함께 소통하며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마련된 맞춤형 프로그램이다.

참여 아동들은 집단상담을 통해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잘하는 것'을 소개하며 교류하고, 발표 활동으로 자신감을 키웠다. 또한 푸드아트테라피를 통해 감정을 창의적으로 표현하며 긍정적 자아 인식을 확장했다. 이와 함께 성격 유형에 맞는 직업을 탐색하고, 해당 직업을 이루는 데 필요한 노력을 고민하는 과정을 통해 미래 설계의 초석을 다지는 기회도 제공됐다.

'다재다능' 프로그램은 오는 11월까지 이어지며, ▲미래설계(나만의 미래직업 만들기) ▲직업체험(화성시문화관광재단 연계 무용단 체험, 미래 유망 직업 탐색 및 체험) ▲다문화가족 자녀 부모교육 ▲부모-자녀 관계 향상 프로그램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프로그램 관련 문의는 화성시가족센터 역량강화팀(070-8831-8432)으로 하면 된다. 김영의 기자